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7월 22일)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상월결사는 8월 28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종단협 부회장 종단 대표들이 함께 했다.

자승 스님 "대학생 전법, 범불교적 동참을"

상월결사, 8월 28일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

자승 스님, 전법 동참 요청에
진각 · 관음 · 태고종 등 참여
종파 초월한 적극 협조 약속
9월 11일 전법대회 개최키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전법 · 포교는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신도 없는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각 종단은 서로의 종지종풍은 존중하면서 전법 · 포교는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학생 전법 불사에 범불교적 동참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한국불교 주요 종단 수장들은 적극적 동참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8월 28일 동국대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부회장 종단 대표들이 함께 했다.

또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집행위원장 원명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이 배석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에 전 종단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지금 포교하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10년 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주요 종단 대표들을 모신 것은 대학생 전법 불사에 각 종단이 가진 역량을 결집시켜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1년에 1개 대학의 불교동아리가 창립될 수 있도록 각 종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스님은 "조계종은 24개 교구본사가 1년에 1개 대학 불교동아리를 창립키로 원력을 모았다"면서 "여기에 각 종단의 힘이 모아진다면 10년 내 모든 전국 대학에 불교 동아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수만 명의 대학생 불교동아리 회원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앉아있는 불교, 말로 하는 불교는 죽은 불교"임을 지적한 자승 스님은 "오는 9월 5~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대학생 전법 워크숍에 각 종단 인재를 전법위원으로 파견해, 함께 전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종단 총무원장 · 통리원장들께 요청드린다"면서 대학생 전법에 각 종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은 대학생 청년불자 양성이 시대적 소명인 만큼 주요 종단 지도자 스님들의 고견의 자리를 만들라는 자승 스님의 지침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젊은 불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미래의 동량이 될 대학생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주고 지원하여 진실한 불자를 육성하는 데 오늘 이 자리가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종단협 주요 종단 대표 스님들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학생 전법 불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며, 각 종단 인재를 전법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기금 모연 등에도 동참키로 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언론을 통해 조계종 교구본사가 지역 대학생 불자를 섭수하는 것을 종단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종단 스님들도 지역 청년들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연을 맺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신도 고령화와 청년불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임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종파를 초월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진각종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불사는 한국불교 중흥의 기초를 닦는 불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청년 포교가 미약한 시점에서 이 같은 불사를 일으키니 감회가 새롭다. 종파를 떠나 적극 협조해 전법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대학생 전법 불사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대학생 전법 불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협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 대작 불사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오는 9월 5~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하며, 9월 11일에는 전법 역량을 모으기 위한 전법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간서 중생교화 주인 되라"

조계종 성파 종정예하 하안거 해제법어 내려

8월 30일 전국 선원 해제 법회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계묘년 하안거 해제(8월 30일)를 맞아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8월 28일 발표한 해제 법어에서 "낱낱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사람들 발밑에는 맑은 바람이 분다. 거울을 깨트려 그림자마저 없나니, 긴 소리로 우는 새가 소나무 가지에 오르도다", "꽃은 뜰 앞의 빗소리에 웃고, 솔은 난간 밖의 바람에 운다. 어찌 묘한 이치를 궁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뚜렷이 통함이로다"라고 두 편의 게송을 인용했다.

성파 대종사는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마음에 편협함과 성냄, 두려움과 어리석음이 없는지 수행자 된 역량을 점검하고, 산문을 벗어나 세간에 나아가서는 마음 밖에서 깨달음을 궁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주, 곧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계묘년 하안거 선원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8개 선원(총림 7곳 · 비구선원 61곳 · 비구니선원 30곳)에서 총 1888명(총림 249명 · 비구 1065명 · 비구니 574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예하 및 총림 방장 법어 8면〉

13대 비구니회장 단독후보 광용 스님, '자격 이상 無'

전국비구니회, 8월 31일 자격심사서 결정

9월 18일 임시총회서 인준 후 당선증 배부



9월 18일 치러지는 조계종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서 서울 성림사 회주인 광용 스님〈사진〉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13대 비구니회장 선출위원회는 8월 31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자격심사를 열고 단독후보 광용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광용 스님은 8월 27일 마감한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선출위원회 시행규칙 제3조 3항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회장에 당선된 광용 스님은 9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3층 만불전에서 열릴 제17차 임시총회 인준을 거쳐 최종 회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시총회 정족수는 회칙 21조 ① 항에 준한다. 비구니회 회칙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회원 2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임시총회 인준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비구니회 장선거로, 공명정대한 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다.

광용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며 발전하는 비구니회 모습을 보고 봉사하고자 출마했다"면서 "본각 회장 스님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비구니회의 내실을 다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화합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광용 스님은 1972년 부천 소림사에서 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3년 소림사에서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졸업 후 동국대 불교학과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서울 마포구에 성림사를 창건, 지역민 마음치유 등을 통한 포교에 앞장서 왔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관련기사 3면〉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기원
2023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

2023 팔관회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일시 : 2023. 9. 10(일)오전 11시
장소 : 초읍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일원
문의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참가신청 행사 당일 현장 접수
접수처 :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 (오후 1시 30분 마감)
어울림한마당 15:00 경품추첨 -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 스탠바이미고(이동식 TV) 등
축하공연 - 인기가수와 함께하는 축하공연
김연자 별사랑 성 리 양지원 서일도와 아이들 정서주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9. 10(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턴 투워드 부산
11. 11(토) 11시 부산지역 각 사찰
2023 팔관회
10. 21(토) ~ 10. 23(월) 금정총림 범어사

주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3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

진우 스님 "아깝다 느끼면 보시 아냐"

조계사서 백중 · 하안거 해제 맞아 대중법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삼독심 버려야 진정한 보시
큰 재비 받아 장보러 가던
해월 스님 · 재주 일화 소개
"돈 · 성공보다 업장소멸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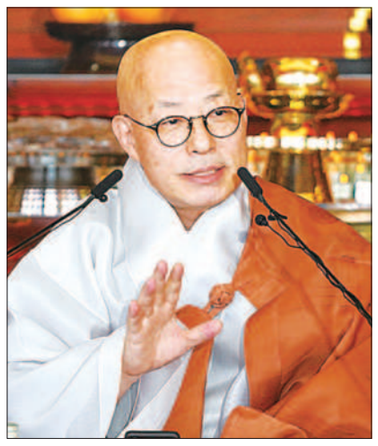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 보시를 하지만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줄까 말까를 고민한다면 복 자체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보시도 아닌 거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30일 불교의 명절로 꼽히는 우란분절과 하안거 해제를 맞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중에게 참된 보시의 가치를 설했다. 진정한 보시는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 스님은 경허 스님의 상좌 가운데 한 명인 해월 스님 일화를 소개했다.

진우 스님에 따르면 오래전 해월 스님이 주석하던 절에 재가 들어왔다. 재주가 낸 재비는 그때 돈으로 100원. 쌀 한 말에 1원 하던 시절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돈이었다. 해월 스님은 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섰고, 길가에서 아기를 업은 채 울고 있는 한 엄마를 만나게 된다. 해월 스님이 무슨 사연인지 묻자 아이 엄마는 월세가 밀려 80원을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답했다. 그러자 해월 스님은 80원을 건네주면서 먹을 것은 있는지 다시 물었고, 아이 엄마가 살 돈이 없다고 하자 남은 20원까지 손에 쥐여 줬다.

아이 엄마에게 재를 지낼 돈을 다 써버린 해월 스님. 스님은 나중에 재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기로 하고 시장을 떠나려는데 그곳에서 때마침 재주를 만났다. 저간의 사정을 전해 들은 재주는 "스님이 대신 복을 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해월 스님에게 다시 100원을 보시했다.

진우 스님이 이 같은 일화를 소개하자 조계사 불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스님은 "해월 스님께서 이 재주가 정말 참다운 불자라고 하셨다"며 "그 모습 자체로 재가 다 이뤄진 셈이다. 이 재주의 후손들도 잘산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백중과 하안거 해제를 맞아 법문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우 스님은 이어 "많은 불자들이 경제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원적인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겉모양만 돈을 벌고 겉모양만 명예를 가질 뿐 스스로의 업인 삼독심은 안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모든 걸 다 갖춰 성공한 삶을 이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은 찾아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진우 스님. 스님은 "돈 잘 버는 건 인연 · 연기에 맡기고 업장 소멸부터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우 스님은 "하안거를 해제하는 2천여 스님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개월간 참선만 하겠느냐"고 되물은 뒤 "내 안의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맑히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습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도 않다"며 "당장 내가 가진 삼독심만 놔버리면 그 즉시 깨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개인의 업장 소멸이 가족을 위한 전법으로 이어진다고도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예를 들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잘되기 어렵다"며 "자식 스스로 마음을 깨우치도록 가르쳐줘야 한다. 자식의 업은 놔두고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경책했다.

스님은 끝으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업장을 소멸하지 못해 자꾸 괴로운 일이 생기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49일간 꾸준히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면 업장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조물서 발견된 성보, 사찰 소유권 인정"

조계종,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환영

앞으로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사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수정 · 가결됐다. 두 개정안 모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의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사찰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부적합한 행정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게 조계종 측 설명이다.

조계종은 25일 해당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종단의 지속적인 노력, 입법기관과의 긴밀한 논의와 상호 협조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은 "건조물 안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보는 현행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 정각회 등 정관계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탑 안에 봉안한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탑과 동일체이며 마땅한 사찰의 소유임은 논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권의 판정이 무의미한 사찰 소유 건조물의 발견 문화재가 사찰의 소유임을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며 "종단은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 이끌 '국제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 정범 스님 등 제10기 위원으로

해외사찰과의 교류를 비롯해 여러 국제회의 등 해외 관련 종책을 이끌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 국제정책 수립과 대외 전략을 자문하는 제10기 국제교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사회부장 도심 스님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 위촉 위원으로 △정범 스님(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 국제전법단장) △성진 스님(남양주 성관사 주지 · KCRP 종교간의대화 위원장) △문종 스님(포교원 포교국장 · 전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무) △경완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덕재 스님(서울대 종교학과 석사과정 · 백담사 및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역임) △황순일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장, 태국 출라롱콘대 · 일본 사이타마대 · 카자흐스탄 알파라비국립대 객원교수 역임)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 2년간이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국장단 인사 단행

직할교구사무처 등 12명
부 · 실장 임명 1주일 만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지난달 24일 각 부 · 실장을 교체하며 제2기 진용을 꾸린 데 이어 국장단 인사까지 단행하며 실무진 인선을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31일 총무원 국장급 12명의 스님들을 임명했다. 새로 임명된 스님들은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선화 스님 △홍보국장 진효 스님 △감사국장 덕운 스님 △재무국장 영조 스님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설경 스님 △호법국장 정오 스님 △조사국장 종인 스님 △상임감찰 선도 스님 △상임감찰 진허 스님 △사업국장 법진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밀엄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하 스님이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각자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해 종책 업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새로 임명된 국장단 스님들.

직할교구 사무국장 선화 스님은 동진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화엄사승가대학과 동국대를 졸업하고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호법부 상임감찰,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홍보국장 진효 스님은 종오 스님을 은사로 2006년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하고 현재 상주 동해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감사국장 덕운 스님은 선지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수계했다. 통도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김포 봉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재무국장 영조 스님은 자민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연등회보존위 사무국장 설경 스님은 지공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운문사 문수선원, 법륜사 법륜제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호법국장 정오 스님은 진원 스님을 은사로 2003년 수계했다. 법주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운필암 · 대원사 · 보현사 · 법화사 주지, 호법부 상임감찰, 조사국장, 기획실 감사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과천 관악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사국장 종인 스님은 선각 스님을 은사로 2002년 수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상임감찰 선도 스님은 태원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학림사 오등선원, 팔공총림선원,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안거 수행하고 사회부 사회국장을 역임했다.

상임감찰 진허 스님은 일귀 스님을 은사로 2008년 수계했다. 송광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총림선원, 망월사 천중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고흥 능가사 주지를 맡고 있다.

사업국장 법진 스님은 무아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운문사승가대학과 동국대(경주)를 졸업하고 운문사 문수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현재 부산 청심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국문화연수원 본부장 범하 스님은 진옥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송광사승가대학,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호법부 상임감찰, 조사과장,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제35회 포교대상' 공모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를 치하하는 제35회 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4일까지 대상인 종정상과 공로상인 총무원장상, 원력상인 포교원장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분야는 계층을 비롯해 직능, 문화체육, 사회, 대중매체, 지역 등에서 현저한 공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 단체다.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대상 후보자의 경우 공적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공로상, 원력상 포함 포교대상 수상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 수상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임은호 기자

진관사 수륙재 개건 625주년·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
진관사 국행수륙재
불기 2567(2023)년
입재 9월 3일-칠재[회향]10월 21·22일



큰스님 초청법문
입재 - 용학 스님
초재 - 도혜 스님
이재 - 영진 스님
삼재 - 혜국 큰스님
사재 - 계호 스님
오재 - 지운 스님
육재 - 성우 큰스님
칠재(회향) - 성파 종정예하

문화행사
작은 음악회
(10월 3일 오후 2시 / 진관사 마당)
지화 전시회 및 시연회
(10월 5일 / 한문화체험관)



주관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시, 은평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문의 02.359.8410

‘참여 · 도약 · 미래’ 토대 중점공약 제시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광용 스님 공약은

제12대 집행부 성과 계승 · 발전
복지환경 조성해 화합 승가 구축
신뢰받는 비구니승가 구현 목표
6천여 비구니에 “함께하자” 당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사실상 당선된 광용 스님이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참여 · 도약 · 미래로 나아가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용 스님이 제시한 영역별 중점 추진과제는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성과 계승 · 발전 △서로 돕고 협력하는 화합 승가 △비구니승가 역량 강화 · 인재육성 진력 △안정적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승가 위상 · 정체성 확립 △사회문제 적극 참여로 대중에 신뢰받는 비구니승가 구현이다.

광용 스님은 먼저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 · 개정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비구니회관을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4년간의 성과를 계승 ·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통합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구니스님들의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 ‘비구니 승가공동체 정신회복을 위한 수행결사’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푸르니청정도량운동, 종교차별 문제대책위 활동, 다문화가족 및 재한미얀마청년 지원사업 등 12대에서 진행한 대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외연 확장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승가를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광용 스님은 화합 승가 구현에 방점을 뒀다.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와 각 지회 간의 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 지회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 마련으로 화합 비구니승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사찰운영 · 신행 · 상담 · 포교에 전문화된 법사스님과 소임자스님을 연계하거나 후계자 계승을 위한 사찰과 비구니스님 간 연계서비스 도입, 소임에 따른 스님 간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대감을 고취하는 화합 승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 육성이 비구니승가 역량강화의 기틀이라는 신념도 드러냈다. 비구니스님에게 최적화된 소임플랫폼 구축 확대와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사회복지, 참선수행, 포교 등에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스님 인재풀 DB구축 · 연계를 통해 맞춤형 인재 배치를 추진함으로써 비구니승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현재 전국비구니회에서 시행 중인 인문학 일요강좌 등과 더불어 외국어, 국제 비즈니스, 불교 문화콘텐츠 활용, 유튜브 활용법 등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교육 수요에 최적화된 연구교육프로그램을 전국비구니차원에서 도입, 운영해 능력개발 의지가 강한 젊은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개진한다. 해인사 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수행도량 지정과 지원 등을 통해 비구니스님들의 노후 삶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가가는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제 또는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전국비구니회원장’ 시행 계획을 밝힌 광용 스님은 “노후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각종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비와 법복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종 제13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광용 스님.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대 구축도 선언했다. 사찰음식과 차문화, 불교영적돌봄, 상담 등 비구니스님이 지닌 강점이자 현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불교문화콘텐츠의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관련 신문자료 디지털화와 비구니 인물 위키백과사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비구니승가의 역사와 수행전통을 적극적으로 선양하겠다는 의지다.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과 종교편향 등에 대한 단합된 활동, 사회적 약자 및 이주민 지원, 샤캬디타 여성불자대회 참여 등 전 인류가 고민하는 의제들에 대해 이웃종교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지체제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 · 협력해 대중으로부터 신뢰받는 비구니승가를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광용 스님은 “모든 과업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6천 여 비구니스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 따끔한 경책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진하는 화합된 비구니 승가문화가 바로 이 모든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 “힘찬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용 스님은…

1972년 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3년 대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해 내원사 · 불영사에서 안거 수행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 · 경전연구회를 졸업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석사를 수료하고,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원을 1회로 졸업했다.

도심포교 일환으로 1994년 대림포교원을, 1999년 조계종 성림사를 개원했다. 경기도 요양보호사자격증 1급, 불교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하고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와 마포구불교사암연합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림사 회주와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한마음요전’에 담긴 지계바라밀은

대행선연구원, 16회 계절발표회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행장, 법어 등이 수록된 〈한마음요전〉에 담긴 지계바라밀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9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계절발표회에서는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이 〈한마음요전〉에 나타난 계바라밀의 고찰’을, 이상호(서강대) 박사가 ‘주인공 원리와 관법의 상관 구조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해인사 율원장 금강 스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윤종갑 동아대 철학생명윤리학과 교수,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지난 제14회 계절발표회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 단체 소개에는 안양본원 선법합창단이 소개된다. 발표는 김진용 합창단장이 맡는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와 더불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불교학 관련 전공자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발표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발표 자료집도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진관사 국행수륙재’ 모든 것 만난다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큰스님 초청 법문 ‘주목’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은 한국대표 불교의례, 진관사 국행수륙대재를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경내에서 설행한다.

진관사는 9월 3일 오전 10시 경내 함원당에서 입재식을 갖고 매주 기도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진관사 수륙재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수륙재 낮재에 해당하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 법문이 이어진다. 22일에는 수륙재 밤재인 수륙연기,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 회향봉송이 진행된다.

매주 큰스님들의 초청 법문도 준비돼 있다. △범어사 前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이 ‘수륙재 공덕의 복전 · 비전 · 경전 · 이전’(9월 3일) △봉녕사 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이 ‘선재동자에게 광수공양을 설하다’(9월 10일)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 영진 스님이 ‘모두 함께 고통의 바다를 여의게 하소서 : 물고기와 새우와 게들도 저 파도 아래에서 법문을 듣다’(9월 17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대종사가 ‘미래세대의 불교를 위한 화두와 다라니, 그리고 기도’(9월 24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바보 반특비구의 게송으로 절의 정문을 세 번 두드리다’(10월 1일) △보리마을 자비선원명상원 선원장 지운 스님이 ‘수륙재 회향공덕의 선순환과 공동체 가치의 확장’(10월 8일) △조계종 前전계대화상 성우 대종사가 ‘발원자는 품속의 보배를 얻고 영가는 대승의 보살계를 받다’(10월 15일)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감로, 함께하는 세계를 위한 축복과 환희’(10월 21일)를 주제로 법문한다.

이외에도 10월 3일에는 ‘제19회 달오름 산사음악회-음악명상 콘서트’가, 10월 5~9일에는 지화전시 ‘가피의 향기-꽃으로 피어나다’가 한문화체험관 3층 아름다움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日, 생태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조계종 사노위 · 불교기후행동
일본대사관 앞 기도회 봉행



“불교계는 그간 1인 시위, 문화캠페인, 서명운동 등으로 뭇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인류와 뭇생명을 향한 핵테러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토세상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출 때까지 더 많은 시민과 힘 모아 정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지구 공동체의 안전을 발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와 불교기후행동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2023 일본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불교 기도회’를 봉행했다.〈사진〉 기도회는 한주영 불교기후행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발언, 발원문 낭독, 신묘장구대다라니 3독, 관음정근, 반야심경 독송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언에 나선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 지 1주일이 지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스님은 “오염수는 수많은 바다 생명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어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다”며 “해양 방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문 스님은 한국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현재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가장 인접함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대로 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묵인 · 승인하는 것과 같다”며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고금 스님도 “해양 생물들이 무참히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비통하다”며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는 조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불보살님께 간절히 기도올린다”고 밝혔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실천불교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이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했다.

김내영 기자



청년들, 명상 수행으로 자유로워지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제2회 청년명상힐링캠프 성료

문경=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깊고 깊은 삼매의 세계로 깊이깊이 들어갑니다. 고요한 적막만이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행복합니다."

스피커로 문경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의 유도 명상 나레이션이 들린다. 지도법사의 지도에 따라 가부좌를 한 130여 청년들은 호흡을 고르고 차분하게 명상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았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이하 명상마을)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청년명상힐링캠프-청년 휴(休), 마음의 길을 가다' 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만18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정원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청년 130여 명은 2박 3일 동안 자신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8월 25일 입소한 청년들은 명상마을 명상홀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명상의 의미 · 자세 · 호흡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전예린 마음건강 전문가의 '크리스탈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전예린 전문가는 "자연의 소리가 432Hz라고 한다. 싱잉볼의 주파수 역시 같다"면서 "싱잉볼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싱잉볼 연주에 따라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다.

싱잉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킨 청년들은 선원장 각산 스님과의 명상 토크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각산 스님은 청년들에게 "운명과 인간관계는 모두 스스로가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운명은 숙명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이고, 이 마음 상태는 루틴, 습관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산 스님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점이 도사(道師), 도량(道場), 도반(道伴) '삼도(三道)' 라고 강조했다.

"도사, 이것은 요즘 말로는 '전문가' 입니다. 스스로를 향상해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직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도사가 되면 좋은 도량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겁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좋은 도량, 환경은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갖춰지면, 좋은 도반이 필요해요. 좋은 친구나 참모, 후원자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겁니다. 이 '삼도' 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청년명상힐링캠프' 를 개최했다. 사진은 선원장 각산 스님이 명상 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8월 25~27일 청년 130명 참여
요가, 선무도, 싱잉볼 명상 등
몸과 마음 휴식 프로그램 진행
"2박 3일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캠프에 참가한 130여 청년들이 명상 체험을 하고 있다.

명상토크 이후에는 비베카 킴 인도 비베카난다요가대학 한국지부 대표의 요가 수업과 IT 발명가인 김승환 명상 미디어 아티스트의 명상IT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채희걸 (사)세계선무도총연맹 이사의 선무도 강연과 선차 명상, 숲속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들이 2박 3일 동안 진행됐으며, 저녁에는 문경의 밤하늘을 보며 스스로를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가 청년들은 이번 캠프가 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엽(27, 대구) 씨는 "대학 시절 명상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블로그의 홍보글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나서 캠프를 신청하게 됐다"며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추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친구가 함께 신청해 참가하게 된 김규리(26, 창원) · 백미승(26, 창원) 씨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규리 씨는 "경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캠프를 알게 돼 신청했다. 최근 정말 바쁘게 살아서 일상에 쉼표를 찍고 싶었는데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백미승 씨는 "현재 학업 중인데 공부가 안될 때가 있다. 이번 캠프로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다"고 말했다.

'수미산원정대' 5기 졸업… "부처님 법 전합시다"

8월 26일, 봉은사 법왕루서 개최
자승 스님 "졸업 축하한다" 치하

상월선원 정진 후 한국불교 중흥과 세상의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원력의 결실로 탄생한 수미산원정대가 5기 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8월 26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수계법회 및 졸업식을 봉행했다.



수미산원정대 5기 졸업식이 8월 26일 봉은사에서 열렸다.

졸업식에 앞서 진행된 수계식에서 5기 졸업생 67명은 "부처님 법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사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졸업생 대표 류준상, 홍상훈 씨에게 직접 만의가사를 수하고 "수계한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가피를 입은 것이니 온 세상이 평화롭고 부처님 가르침이 온누리에 가득해 모든 중생이 함께 이익을 얻고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축언했다. 수계제자 67명 전원은 장궤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읊으며 연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다.

수미산원정대는 위례신도시 공사 현장 한복판 상월선원에서 아홉스님의 죽음을 무릎쓴 무문관 정진 이후 사부대중이 함께 세상 속에서 불교 중흥과 세상의 화합을 이룩하기 위한 원력의 결실로 탄생했다. 2021년 5월 27일 제1기 입학식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인연맺기와 정진을 통해 2023년 2월 4일 제4기 수계식과 제5기 입학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수계법회 이후 진행된 졸업식에서 자승 스님은 졸업생 67명에게 축하의 말은 전하고 5기 대표인 이호중, 박철규 씨에게 졸업증을 수여했다. 교육 전과정을 빠짐없이 출석하고 3가지 졸업 과제를 모두 이수한 14명에게는 특별상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24명에게는 정진상이, 5기 원정대원들을 잘 이끌어준 4명의 반장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다. 올해는 특히 이웃종교인으로 입학해 부처님 법이 담긴 수미산원정대의 모든 과정과 과제를 모범적으로 이수한 이들에게 전법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전법상은 구필현, 박무영 씨가 받았다.

5기 입학생은 137명으로 천주교 12명, 개신교 6명, 무교 84명, 불자 35명으로 구성됐다. 결사의 의미부터 부처님 이해, 불교 교리와 계율, 수행, 의례와 문화 역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최고 강사진과 함께하는 총 10번의 강의를 받았다. 기간 중 3가지 이수과제로서 이웃종교 도반을 만드는 인연 맺기와 상월결사 정신을 체험해보는 상월선원 템플스테이가 진행됐다. 4월 1~2일에는 속리산 법주사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오는 등 부처님 가르침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교육과정은 현장출석으로 진행됐으며 매 강의는 유튜브로 방송되기도 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 67명이 이날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수미산원정대 단장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축사에서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해야한다"면서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니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도 "수미산원정대 5기는 인도순례 기간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인연"이라면서 "부처님 법 전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선배기수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1기 동문회장 육경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1~4기동문회는 법문을 잘 새겨 실행에 옮기며 신행과 전법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니 5기도 빠른 시일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기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도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부처님 법 전하는데 새로운 삶을 바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은 자승 스님이 작시하고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이 작곡한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를 봉은국악합주단이 음성공양 올리며 마무리됐다. 5기 졸업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수미산원정대가 심은 원력의 씨앗들이 더욱 잘 자라나도록 정진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해인사 홍화문 등 사찰 일주문 보물된다

문화재청, 6건 보물 지정 예고
조선시대 건축 양식 반영 성보

해인사 홍화문 등 전국 사찰 6곳의 일주문들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8월 28일 지정 예고했다.

일주문(一柱門)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대부분 다포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문화유산 지정이 돼 왔고, 기타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사찰 일주문 50여 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합천 해인사 홍화문을 비롯해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달성 용연사 자운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 등 6건의 일주문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합천 해인사 홍하문' 은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으나, 1457년(세조 3)에 중수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합천 해인사 홍화문.

'함양 용추사 일주문' 은 함양 용추계곡 일대에 존재했던 옛 장수사(長水寺)의 일주문으로 1711년(숙종 37)에 건립됐다. '곡성 태안사 일주문' 은 2017년 보수공사에서 확인된 상량문에 의하면 조선 전기인 1521년(중종 16년)에 '조계문(曹溪門)' 으로 창건됐다. '하동 쌍계사 일주문' 은 '영남하동부쌍계사사적기문' 에 따르면 1641년(인조 19)에 세워졌다.

'달성 용연사 자운문' 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순천 송광사 일주문' 은 건립연대가 확인되지 않지만 1802년(순조 2) 중창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홍하문' 등 사찰 일주문 6건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진흥원, 청년불자 · 동아리 장학금 지원

126건 3억1400만원 수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제7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에 선정된 개인 및 단체 126건에 총 3억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원청년 불자상은 건국대 이상민 씨를 비롯한 63명이, 동아리를 위한 대원청년 동아리상은 경희대 불교학생회 등 63곳의 동아리가 선정됐다. 증서 수여식은 8월 31일 진흥원 임원실에서 각 대표 1인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열렸다.

한편 진흥원은 2020년부터 연 2회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고려 왕 머물던 강화 묘지사지 건물지 확인

국립서울문화재硏 8월 29~30일 현장보고회

강화 천도시기 고려의 왕이 머물었다고 전해진 묘지사지에서 다락이 있는 이층 건물지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8월 29~30일 강화 묘지사지 발굴 현장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묘지사는 1264년 왕이 마니산 참성단에서 별을 향해 지내는 제사인 초제를 지내기 전 지냈던 사찰이다. 마니산 동쪽 초피봉 남사면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지사지는 산 사면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평탄지 2곳으로 이뤄져 있다. 서쪽 계곡부에서 하단 평탄지로 진입하도록 설계됐으며, 하단 평탄지는 마당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에 건물지가 직각을 이루도록 배치된 구조다. 이번 조사 결과, 건물지는 모두 3동이 확인됐다. 대규모 중심 건물과 생활시설을 갖춘 부속 건물로 구분돼 있다. 상단 평탄지에 있는 북쪽 중심 건물은 경사 지형을 이용한 다락집 형태 건물지다. 위에는 대규모 난방시설을 갖춘 방과 누마루가 설치됐다. 난방시설은 방 양쪽에 설치된 아궁이를 통해 유입된 화기가 방 전체를 'ㄷ' 형태로 회전하면서 건물 북쪽으로 각각 빠져나가는 구조다. 누마루 아래에는 별도 건물 공간으로 활용된 것도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이는 13세기 방 전체에 깔린 전면온돌의 온전한 형태를 갖춘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된다"며 "이와 같은 다락집 구조는 지금까지 동 시기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고려시대 건물 구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평가했다. 또한 하단 평탄지 동쪽에 나란히 자리한 부속 건물지 2동에는 내부에 아궁이와 부뚜막, 온돌시설 등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으며, 현장에서는 차맷돌, 벼루, 찻잔을 비롯한 다양한 도자류, 다량의 평기와가 출토됐다.


강화 묘지사지 중심 건물지 상층 온돌시설 근경.

신성민 기자

신규 포교사 함께하는 '8재계수계실천대법회'

포교사단, 9월9일 호국연무사서
28회 신규포교사 398명 품수식

조계종 포교사단이 9월 9일 오전 10시 군종특별교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8재계수계실천대법회' 를 봉행한다.

법회는 제1회 포교활동수기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우수 포교사 시상식, 제28회 일반포교사 · 제17회 전문포교사 품수식, 포교원장 범해 스님 법문, 8재계수계식, 수행정진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품수할 포교사는 총 398명이다. 지역단으로는 대구지역단이 67명으로 최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지역단 47명, 경남지역단 41명, 경북지역단 41명 순이다. 불교대학은 대관음사에서 50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다음으로는 대구불교대학에서 18명, 화엄불교대학 18명 순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지역단 강준구 씨, 대구지역단 곽미소 씨(이상 1993년생)며 최고령 합격자는 서울지역단 윤경자(1943년생) 씨다.

한편 포교사단은 2023년부터 매년 여름 6재일에 8재계 지계실천운동을 시작, 2022년까지 제18회 행사를 성료했다. 팔재계는 팔관재계의 줄임말로 재가자로서 매달 재일과 계를 지키기가 어려워 1년에 한 번이라도 '8재계수계대법회' 를 통해 무박 2일 8재계를 수지하며 철야정진을 하고 포교 원력을 견고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임은호 기자

“스타 응원, 이젠 ‘생명나눔’ 실천으로”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6. 팬들의 생명나눔 기부 행렬



생명나눔실천본부에 202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돕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스타투표 리매치’는 팬들이 가수 이름으로 기금을 적립 후원금을 보시할 수 있는 앱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팬들이 스타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표현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음반을 구매하거나 현장을 따라다녔다면 현재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팬심을 표하고 있는 것. 과거에는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기부사례가 미담으로 소개됐다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모인 팬들의 집합인 팬덤 차원의 기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생일, 데뷔일 등 특정 날짜에 맞춰 성금 릴레이를 펼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봉사에 나서는 등 팬들의 기부가 트렌드로 여겨질 만큼 팬덤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를 통해 2020년부터 꾸준히 팬덤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스타투표 리매치’는 가수를 응원하면서 선행까지 할 수 있는 앱이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2’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 출연했던 가수의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한다. 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됐을 때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투표 받은 가수 이름으로 후원한다.

100만 표 당 10만 원이 가수 이름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되며 현재 3만여 명이 앱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스타를 향한 팬들의 성숙해지는 응원 방법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타투표 리매치’ 앱을 개발한 이현진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앱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꾸준히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해왔다. 현재까지 21회에 걸쳐 기부한 후원금이 1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이현진 대표는 2020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2021년 7회, 2022년 8회 등 기부 회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도 8월 현재까지 5회 후원한 상태다.



배수지 씨 팬클럽 ‘배꽃마을’ 등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동참한다.

스타에 던진 한 표 모여 기부
사회에 따뜻한 온기 불어넣어
팬들 자발적 마음 기부행렬로

이현진 대표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을 높이 평가받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한 해동안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생명나눔 대상’에서 2022년 나눔상을 받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는 산사음악회 후원부분 공헌자로 표창받았다.

‘스타투표 리매치’의 기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을 사회를 위한 기부로 보여준다는 것과 팬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은 마음이라는 점에서다. 성별, 나이,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연예인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유대감이 형성돼 개인 차원에서는 낯설고 힘들었던 기부가 함께하니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팬들의 따스한 마음을 알고 스타도 함께 동참하면서 선순환적인 기부행렬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선행에는 배우 겸 가수 배수지 씨를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직접 참여,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배수지 씨는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에 5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난치병 어린이뿐 아니라 긴급 환자 발생 시 남몰래 수술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전달하는데도 적극적이다. 2017~2018년에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다.

배수지 씨에 선행에 감동받은 팬들도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팬사이트인 ‘DC갤러리 수지’ ‘배꽃마을’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생일맞이 기부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동참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은 “팬덤 기부 문화는 기부의 진정성도 지키면서 색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고 확장돼 가는 모임 · 단체 기부 트렌드에 발맞춰 생명나눔도 모연 브랜드를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팬클럽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해주길 바라며 생명나눔 희망등록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스타 응원하고 기부하며 보람 느끼는 앱 발원”

이현진 ‘스타투표 리매치’ 앱 대표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셨기에 더욱 믿음이 갔죠.”

이현진 스타투표 리매치 대표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인연은 202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후원 등에 관심이 많았던 이현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인터넷을 통해 기부단체를 찾던 중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소개한 기사를 접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부터 환자 지원, 불우이웃돕기,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눈에 띄었다. 대규모 단체가 아님에도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검색을 좀 더 해보니 가수이자 배우인 배수지 씨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것에도 믿음과 신뢰가 갔다. 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의 뜻을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이현진 대표는 2020년 11월, 트롯 투표 리매치 앱 시즌 1이 종료됨과 동시에 후원을 시작했다. 올해 8월 현재 기부 누적금액이 벌써 1억 5700여 만원에 달한다.



이현진 대표는 ‘2022년 생명나눔 대상’에서 나눔상을 받았다.

아직은 1인 기업이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게다가 후원까지 하는 일이 힘겨울 법도 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면서 보람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직접 기부금도 전달할 수 있는 앱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최근 앱 이름을 ‘트롯 투표 리매치’에서 ‘스타투표 리매치’로 변경한 것도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바램이 담겼다.

이 대표는 “팬으로 즐겁게 응원하고 기부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되는 앱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풍성한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한다

한 눈에 보는 생명나눔 하반기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3여 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일상이 재개되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 자비사상 전파와 법인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 국화가 만발하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15회 차를 맞은 음악회는 10월 21일로 예정됐다.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문화공연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름다운 무대로 꾸며진다. 트로트와 발라드, 댄스 가수들이 총출동해 신명나는 음악무대를 선사하고 치료비와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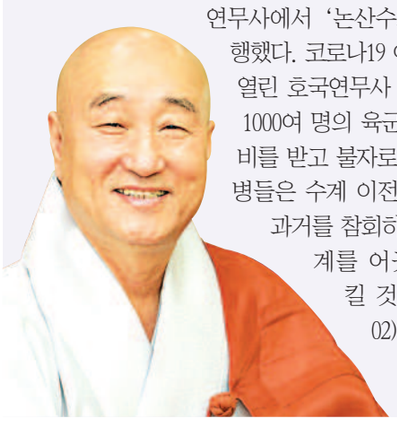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가 치료비 모금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따듯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을 올리며 특히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는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생명나눔 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지난해에는 윤근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음악회에서는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과 국악가수들의 열창,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가을 산사음악회로 감성 가득
겨울 정나누기로 따뜻함 전해

서울 달동네와 영구임대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는 따뜻한 정나누기 행사는 1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수년 전부터 겨울이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과 의정부 일대 등 낙후지역을 후원해왔다.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들이 직접 나서 솜이불뿐 아니라 김치와 라면 등 기초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기부 문화가 불교계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논산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는 1000여 명의 육군 장병들이 연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장병들은 수계 이전 오계를 어긴 과거를 참회하고 앞으로 오계를 어긋남 없이 지킬 것을 서원했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현대미 입은 전통불화 선보이다

조해종 불모, 9월 9~24일 통도사박물관 기획전시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조해종 작가가 9월 9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2층에서 열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불모 연당 조해종 작가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작풍(作風)으로 과거와 현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 작품에서는 전통불화의 숭고한 장엄미를 선보일 뿐 아니라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 친숙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33응신을 담은 도상에서는 시계를 차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남성이 군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고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운동복 입은 남성도 눈에 띈다.

조해종 불모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되 현대인에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35년 동안 이어온 작품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시는 전통불화와 비구상 작품 등 다양한 장르를 중심으로 후불, 관음, 칠성, 관세음보살 42수, 화엄(비구상), 달마도, 문자도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은사인 故석정 스님의 작풍을 사사한 흔적도 엿보인다. 조해종 불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이자 불화장이었던 석정 스님의 제자이며 이수자다. 조 작가는 인재 양성이라는 석정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해 동국대 WISE캠퍼스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불화 수업을 이어왔다.


관세음보살보문시현도 지본 채색(조해종 作, 100×80㎝).

조해종 불모는 "은사이신 석정 스님의 불화 초본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은사스님은 저에게 '연꽃의 집'이란 뜻을 가진 연당(蓮堂)을 호(號)로 주셨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진하라는 뜻으로 삼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올바른 전통의 계승은 모든 면에서 녹록지 않지만 불화 조성은 저에게 수행이자 기도로, 모두가 밝아지고 법향(法香)이 가득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해종 작가는 이번 전시를 포함해 열 번의 개인전을 비롯, 100회가 넘는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금강산 신계사(후불탱)와 양산 통도사, 취운암, 반야암, 단양 대흥사, 화엄사 금정암, 군위 인각사, 지리산 백장암, 제천 강천사 등에서 불화 불사를 진행했다.

조 작가는 동국대 디자인미술학과(불교미술전공) 외래교수이며,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화 강사,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초대작가다. 현재 문화재 수리기능자 모사공 심사위원, 부산 · 대구 · 경북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불화 심사위원, (사)성보문화재 연구원 이사, (사)일섭문도회 부회장, (사)부산미술협회 불화 · 민화 분과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 극락왕생 기원

서울 신림동 사건 피해자 부산 행복선원 신도 확인 "가석방 없는 징역" 촉구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부산 행복선원에서 봉행됐다.

부산 행복선원(주지 윤광)은 8월 25일 경내 법당에서 49재를 봉행하고 피해자의 극락왕생과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길 기원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부모는 행복선원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폭행' 근절을 위해 거리에서 캠페인을 펼친 행복선원 주지 윤광 스님과 불자들.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한다. 어머니는 일주일 넘게 음식도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고, 다른 가족들도 트라우마로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광 스님은 "피해자는 행복선원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신도분의 자녀로서 명절이나 방학 때면 항상 찾아와 인사하는 밝고 활기찬 법우였다"며 "무차별 폭력과 살인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복선원은 다음 날 부산 덕천로터리 일대에서 펼쳐진 캠페인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사형제 부활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행복선원은 '묻지마 폭행'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안내문과 호신용 전자호루라기 300여 개를 배포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했다.

부산행복네트워크 회원, 지역단체장을 비롯해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윤광 스님의 인사말 △피해자 추모 묵념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두 시간에 걸쳐 캠페인을 펼친 참가자들은 '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자'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덕천로타리에서 지하철 숙등역을 거쳐 만덕동사거리까지 이동했다.

윤광 스님은 "'묻지마 폭행' 근절과 예방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섰다"며 "너무나도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을 추모하며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선원은 지난달 25일 경내 법당에 신림동 공원 폭행 피해자를 위한 분향소를 마련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이도경 부산지사장

"자살 · 교통사고 없는 부산 기원"

부산불교대학 · 화엄승가회, 제6회 합동 캠페인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가 8월 27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제6회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매년 자살예방 및 교통사고 없는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산시민을 위한 회향 한마당을 열어 점심공양을 올리고 음악회로 활기찬 하루를 선물했다.

행사는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진행하는 위령대재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경로효 잔치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무대로 길놀이, 트로트 공연, 풍물놀이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부산어린이대공원을 돌며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스님들은 어깨에 '살기좋은부산만들기'라는 문구를 새긴 띠를 두르고 곳곳을 방문했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손팻말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사진〉



학장 범혜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자살은 고통의 종말이 아니라 괴로운 업을 파종하는 시작일 뿐"이라며 "사람은 생로병사하며 육도윤회를 거듭하는데 이번 생이 다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가장 강력한 업에 이끌려 다음 생을 받는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캠페인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새기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 닮기 위해 노력하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락서암 백중 법문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사진>이 백중을 맞아 "조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재불사에 앞장서는 락서암(주지 수월)은 8월 27일 관효 스님을 초청해 백중 법회를 봉행했다. 관효 스님은 이날 〈부모은중경〉 내용을 중심으로 "고아는 외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주변에 친구가 많아도 부모가 없으면 외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외로움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게끔 정성으로 기도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며 "성내지 않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라고 강조했다.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도량이 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회복지법인 혜원 '26회 백일장' 개최

대상에 김가연 · 문지우 학생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은 8월 26일 혜원정사에서 '제26회 혜원 백일장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글제는 운문부문 '쉼' '반려'가, 산문부문은 '개인주의' '기후변화'가 제시됐다. 당일 진행된 백일장 심사는 수필가이자 시인인 성전 스님과 문태준 시인, 김연수 · 변왕중 소설가가 담당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운문부문 김가연(안양예술고), 산문부문 문지우(주감중)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그 외 부산시교육감상에 강민재(부산정보고), 정하율(양동초) 학생을 비롯해 총 2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반갑다"며 "여러분의 글을 보면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국대 학생들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학생들
은해사서 불교문화체험 나서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활동
돈관스님 "눌 자비 실천하길"


동국대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학생 130여 명이 8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경내 육화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약사여래서원 수계법회를 통해 전법 의지를 다졌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동국대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학생 130여 명이 8월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경내 육화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약사여래서원 수계법회를 통해 전법 의지를 다졌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란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사단법인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생전법위원회 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첫날 오후 3시 입재식에 이어 사찰예절 및 발우명상을 통해 사찰문화를 익히고, 팔정도 토론과 단주 만들기로 신심을 다졌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입재식에서 "오늘 템플스테이가 유익한 체험이 되어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은해사 방문을 환영했다. 은해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침구까지 특별히 주문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7일에는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나를 찾는 걸음 명상' 에 이어 대학생전법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계사로 한 약사여래서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사 돈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부처님 법을 만났다"며 "특히 사람의 몸을 다루는 여러분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광명조요대원, 신여유리대원, 수용무진대원, 대승안립대원, 삼취구정대원, 제근구족대원, 중환실제대원, 안립정견대원, 기근안락대원, 의복엄구대원 등 약사여래불 서원십계를 합송하며 불제자로 살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정수기(灌頂授記)를 내려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줬으며,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은 수계첩을 수여했다.

돈관 스님은 "이제 여러분을 삿된 기운 물리치는 신장님들이 지켜줄 것이니 용맹스럽고 기품 있고 당당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학생들은 수계첩을 받아들고 불자로 거듭났다. 서지현(의학과4, 불명 여의주) 학생은 불명을 받은 소감을 묻자 "한층 경건해졌다"며 수계첩을 들어보였다.

동국대 의학계열 불교동아리 템플스테이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동국대 의료원 지도법사 혜능 스님, 은해사 연수국장 혜석 스님, 채석래 동국대 의료원장, 김광기 기획처장, 이관 의과대학장, 김기욱 한의과대학장,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 등 18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대학생전법단은 성원 스님(미래본부 사무총장), 용주 스님(거동사 주지), 지안 스님(미래본부 국장), 여여 스님(은해사 포교국장), 무공 스님(안흥사 주지), 선지 스님(죽림사 주지), 선웅 스님(은해사 기획국장), 서오 스님(영천포교당 주지), 혜능 스님(제적사 주지), 성호 스님(은해사 복지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은해사 권역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대경대, 성운대, 영남외국어대, 한국폴리텍로봇캠퍼스, 호산대 등 11개 대학에 전법단을 지도할 예정이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지역 청소년 장학금 전달

40명에 총 1440만원 전달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가 올해에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는 8월 25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초·중·고교생 28명과 대학생 12명에게 총 14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청소년들이다. 장학생은 자원봉사자들의 가족 중 진안군 31개 자원봉사단체와 협약기관의 추천을 거쳐 선발됐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마이산 탑사 문도회는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정진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의 학업을 위해 별도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상준 붓다봉사단 총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강원종무원장 성인 스님, 전주 천지사 현진 스님,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 이재현 붓다봉사단장, 김용진 前진안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진안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장학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진성 스님은 "우리 이웃을 살피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게 됐다. 타인에게 나를 낮추고 배려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왔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이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봉사하면서 나라와 진안군을 위해 자원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도 축사를 통해 진안지역 청소년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온 탑사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 군수는 "진안 출신의 훌륭한 선배들 뜻을 이어받아 더욱 빛나는 진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도 진안의 미래가 되어달라는 격려의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8월 25일 김해 금강사에서 봉행된 비담당 금산 대선사 49재 회향법회.

비담당 금산 대선사 49재 회향법회

삼보조계종, 8월 25일 김해 금강사서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이 원로원장 비담당 금산대선사의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8월 25일 김해 금강사 대법당에서 봉행된 회향법회는 지난 7월 입적한 금산대선사의 49재를 맞아 삼보조계종과 대한범불교종단협의회가 주관했다.

법회에는 금산문도회 자문위원장 자광 스님,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삼보조계종 사무총장 평산 스님, 불국사 지일 스님, 봉국사 동산 스님, 영산정사 법웅 스님, 혜광선원 혜광 스님, 봉암사 애심 스님, 칠성사 일행 스님, 비로암 무익 스님, 약수암 도각 스님, 김성후 재가제자, 김순연 불교문화예술보존회 대표 등 문도와 불자들이 참석했다.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봉행추도사를 통해 "금산 대선사는 한국불교의 흥복이었고 대선사의 걸음은 지혜의 불이요, 허공의 뼛속을 뚫는 법등불이었다"며 "삼라만상 어디선가 대선사의 청아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추모했다.

문장 자광 스님은 "선화의 붓 끝에 마음을 실어 부처님 은혜를 갚겠다는 뜻을 이제야 알겠다"며 "큰스님의 공덕으로 부처님 법력을 널리 전해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동불암지, 동쪽 아닌 銅"

오강석 위원 주장…"동불암 오기 수정을"

선운사 등 동불암 관련 전각들
불상 동쪽 방향과는 연관 없어
지역사료 통해 근거 다수 확인
"전문가 조사, 학술대회 필요"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호상 부위에는 20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보물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의 동(東)을 동(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창학연구회(사료조사위원 오강석)는 8월 29일 발표한 조사 자료를 통해 "보물 마애여래좌상이 소재한 선운사 동불암지(東佛庵址)는 본래 동불암지(銅佛庵址)였다"고 주장했다.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로 지정될 당시부터 명칭에 오류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오기 역시 수정되지 않는 것이다.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은 고려 공민왕 때 불상의 호상에 구리 주물을 씌워 '동불(銅佛)' 이 됐다. 높이 15.7m, 무릎 너비 8.5m 규모다. 눈과 비를 맞지 않도록 얼굴 위쪽에 청자기와를 올려 보호각도 설치했다. 불상 아래에는 하도솔암(下兜率庵)을 지어 동불과 암자를 아울러 속칭 '동불암(東佛庵)' 이라고 불렸다.

동불은 1648년 태풍의 영향으로 얼굴의 구리 주물이 떨어져 파괴되면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고창학연구회 주장이다. 동불이 재등장한 것은 1969년 5월 28일, 한 나무꾼이 발견·신고하면서부터다. 나무꾼은 동불암의 동(銅)을 음이 같은 동(東)으로 오기해 신고했고, 직후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高敞 禪雲寺 東佛庵址 磨崖如來坐像)' 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오강석 고창학연구회 사료조사위원은 "〈전선원무장지(全鮮元茂長誌)〉 〈무장현읍지(茂長縣邑誌)〉 〈무장읍지(茂長邑誌)〉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권9의 '전선무장지(全鮮茂長誌)' 등 다양한 문헌 자료에서 '불상의 호상에 구리 주물이 씌워져 있었음(而面像則鑄銅而掛之)' 을 명확히 밝히고, 그 구리 주물이 사라진 시기와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화재 등재 당시 문헌조사를 시행했다면 어렵지 않게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창학연구회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고창학연구회는 올해 7월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정밀 드론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 위원은 "△부처님 호상 부위에 집중된 20개의 구멍이 구리 주물 고정을 위해 철제를 꽂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 △호상 구멍들이 좌우 대칭적으로 뚫려 있어 동판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한 안배로 보이는 점 △호상 부위 암석 변색 부분이 구리 부착으로 인한 산화 흔적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현장 조사와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시방삼세 통하는 보통교(普通橋)

조계총림 방장 현봉 근일 대종사



다리는 물길이든 땅길이든 양분(兩分)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는 방편의 가운데 길이다.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진 것을 연결하면서도, 그 사이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하나가 되도록 허공에 걸쳐 통하게 하는 다리는 곧 공로(空路)이며 중도(中道)이다. 〈중략〉

화엄경 정행품에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강물을 바라볼 때는 중생들이 진리의 흐름을 따라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도록 원할지어다. 산골짜기의 물을 볼 때는 중생들이 먼지와 때를 씻고 맑은 마음이 되도록 원할지어다. 다리를 건너갈 때는 중생들이 누구나 나와 남을 피안(彼岸)으로 건네주는 다리처럼 되기를 원할지어다."

수행하는 보살은 하나하나의 사물을 대하면서 모두에게 무연의 자비심을 내도록 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가로 질러 건널 적에 얕은 물은 간단히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기도 하지만 깊은 물은 다리를 놓아야 한다. 다리는 지형 따라 그 방법이나 모양이 각양각색이니, 다리마다 사연이 있고 그 이름도 다양하다. 〈중략〉

우리 조계산 송광사의 골짜기에도 아름다운 전각의 지붕이 있는 무지개 돌다리인 극락교와 능허교가 있고, 수석정 가는 길에는 외돌다리〈略彴〉가 있다. 그리고 낙하담(落霞潭) 가에 지난 백년 동안 송광사와 애환을 같이 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불사를 위해 온갖 것을 실어나르던 오래된 낡은 다리가 있었다. 지난봄에 그 다리를 헐어내어 새롭게 튼실한 둑을 만들어 조계수가 멈추는 낙하담을 약간 높이고, 무너미하는 둑 위에 다리길을 만들고 보통교(普通橋)라고 이름하였다. 이 보통은 시방삼세에 두루 통한다는 뜻이다.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고 했다. 보통교는 이 세상 누구라도 어디라도 두루 널리 유통(流通)하는 다리이니, 사람도 건너고 나귀도 건너고 말도 건너고 산짐승도 건너고 차도 건너며 때로는 여럿이 때로는 하나씩 건너간다.

橋流水不流 霞潭開眼睛
淸風與明月 去來不留情

다리는 흐르고 조계수는 안 흐르니 낙하담은 맑아서 눈동자를 열었는데 맑은 바람 불어오고 밝은 달이 비추지만 오고 가는 그 정취를 남기지 않는구나.

영축산 백일홍이 붉게 피었도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箇箇面前明月白(개개면전명월백)하고
人人脚下淸風吹(인인각하청풍취)로다.
打破鏡來無影跡(타파경래무영적)하니
一聲啼鳥上松枝(일성제조상송지)로다.



낱낱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사람들 발밑에는 맑은 바람이 분다. 거울을 깨트려 그림자마저 없나니 긴 소리로 우는 새가 소나무 가지에 오르도다.

안거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산문을 나서는 그대들의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더위를 식혀주는 맑은 바람과 갈증을 풀어줄 감로(甘露)는 넉넉히 준비했는가? 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 하고 성냄이 없어야 하며,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어리석지 않아야 하리라. 이러한 역량이 구족 되어야만 구룡지 옆 백일홍이 무더위에 더욱 붉게 피었다는 영축산의 소식을 믿고 찬탄하리라.

약산 스님이 어느 스님에게 세간에 나아가 화주를 하라 시켰는데, 그 스님은 겨우 산문 밖에 나가 어느 절 감지행자의 집으로 갔다. 행자가 "스님은 어느 절의 화주이십니까?" 하니 스님은 "약산에 있소." 하였다.

행자가 "그러면 약이라도 좀 가져오셨는지요?" 하니 스님은 "행자는 무슨 병이 있으신지요?" 하였다. 행자가 은 20냥을 갖다가 주니, 그 스님은 얼른 받아서 약산으로 돌아갔다. 이에 행자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약산에 기특한 사람이 있다면 은이 되돌아올 것이며, 기특한 사람이 없다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하였다. 스님이 바로 약산으로 돌아오니 선사는 "어찌 그리 빨리 돌아오는가?" 하였다.

스님이 "불법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하니 선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였다. 스님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선사가 듣고 나서 "그대는 빨리 그 은을 그에게 돌려주어라." 하니 스님은 은을 가지고 행자의 집으로 가서 은을 돌려주었다. 행자가 그의 아내에게 "약산에도 기특한 사람이 있었구료." 하며 다시 은 20냥을 보태어 약산으로 보냈다.

花笑階前雨(화소계전우)하고
松鳴檻外風(송명함외풍)이로다.
何須窮妙旨(하수궁묘지)리오.
這箇是圓通(저개시원통)이로다.

꽃은 뜰 앞의 빗소리에 웃고
솔은 난간 밖의 바람에 운다.
어찌 묘한 이치를 궁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뚜렷이 통함이로다.

8월 30일 계묘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본래 마음 바탕 깨달아 주인공으로 살라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천강유수원귀해(千江流水元歸海)하고
일락서산불리천(日落西山不離天)이로다.
일월보현일체수(日月普現一切水)요.
일체수월일월섭(一切水月一月攝)이로다.



서산(大師)의 법명은 휴정(休靜)이고 호는 청허(淸虛)라 하고 서쪽 묘향산에 오래 계셨으므로 (西山)이라고도 합니다. 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10여 년 동안 묘향산에서 50여 권의 경론과 어록을 읽다가 중요한 대목이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각 구절마다 주해를 달아 풀이하고 차례로 엮어 놓은 선가의 귀중한 책입니다.

선가귀감 첫 머리에 유일물어차(有一物於此)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이래(從本以來)로 소소영영(昭昭靈靈)하여 본래로 좇아 소소영영해서 부증생(不曾生) 부증멸(不曾滅)이라. 일찍이 난 것도 아니고 일찍이 멸한 것도 아님이라. 명부득(名不得) 상부득(狀不得)이로다.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음이로다.

일물자(一物者)는 하물(何物)고 한 물건이란 어떤 물건인가? 옛사람이 말하길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에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이라. 옛 부처 나기 전에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유미회(釋迦猶未會)어니 가섭(迦葉)이 기능전(豈能傳)가 하니라. 석가 부처님도 알지 못하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까 보냐?

여기서 모르는 것은 아는데 상대되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知) 부지(不知) 불속(不屬)입니다. 알고모르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풍가계(風可繫) 공가착(空可捉)이나 차일물(此一物) 수능설(誰能說)이리오. 바람을 얽어매고 허공을 붙잡을 수 있을지라도 이 한 물건은 누가 능히 말하리오.〈중략〉

남악회양 스님은 처음 숭산 안국사를 찾아가니 안국사가 조계에 가서 물으라 하여 육조 스님을 찾아갔다. 육조 스님께서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회양 스님이 꽉 막혀서 어쩔 줄 모르다가 팔년 만에 깨치고 나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닦아서 증 하는 것이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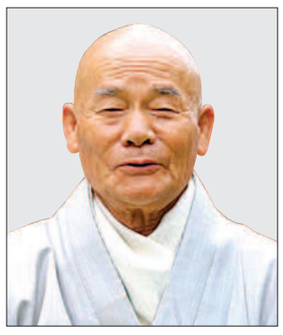
"닦아서 증 하는 것은 없지 않으나 물들어 더럽혀짐은 없나이다."

"다만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모든 부처님께서 수용하는 것이니 네가 그러하면 나도 그러하다."하고 인가 하셨습니다. 〈중략〉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또 좋고 나쁜 것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을 깨달아 주인공의 삶을 살 때 허공에 손 내젓는 것처럼 활발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략〉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一擊忘所知 更不假修治
動容揚古路 不墮悄然機
'탁' 부딪히는 소리에 아는 바 잊어버렸네. 다시 닦을 일이 없네. 움직이니 옛길이요, 망상에 떨어질 일이 없네.

납승의 오도송입니다. 납자의 살림살이가 이와 같더라.

산하대지에 크고 작은 온갖 생명들 충만한 허공이, 태양이, 바람이, 흐르는 물이 감싸 안아 서로서로 끝없이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몸 四大는 어디서 밀려온 끝 물결일까? 광활하고 신비한 이 몸, 이 몸은 어디서 불어온 끝 파도일까? 알 수 없다, 이~뭘까? 이뭘까 화두로 백천만 번 파도치고 물결쳐서 뒤집어 돌이키고 돌이키자.

부처님의 第一聲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인가? 철저하게 내 책임이다. 보고 듣는 이 물건, 이~뭘까? 굴리고 굴려 願我世世 生生處 언제 어디서나 尙於般若 不退轉 그때그때 알 수 없는 이 물건, 이 반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큰 사랑으로 이 觀心, 한 덩어리, '응관법계성' 이 應觀, 이~하는 이 자체 끝없이 끝없이 돌이켜 어루만져 돌이켜라.

〈중략〉

巍巍落落 赤裸裸
獨步乾坤 誰伴我
한 물건도 붙을 수 없는 이글이글 타는 이 물건 하늘땅 녹아져 견줄 데가 없네.

코가 꿰이면 끌려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사가 붙을 수 없는 이뭘까? 가 기본 첫 단추 업장이 좌우할 수 없는 기본 화두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물건, 천상천하에 유일무이 이 물건 돌이켜 굴리고 굴려 돌이켜라. 통쾌하다. 숨이 쉬어진다. 영혼이 흐뭇해진다.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소가 되어도 코 꿸 구멍이 없다.' 이 법문을 지금 만났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이~뭘까?

〈하략〉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상품 공통사항 럭셔리 올포함! 국제선 항공료, 호텔(2인1실), 전 일정 식사, 순례지 입장료, 기사/가이드 비용,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인도/네팔 7대성지순례 10일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5성 호텔(성지구간 4성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 구간 한식 요리사 대동, 전 구간 불교전문 가이드


룸비니


마하보디 사원


열반당


사르나트


탓루앙

라오스 완벽 순례 6일

주요 불교 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 동굴-카약 체험
체크포인트 : 5성 호텔, 탁발 행렬 참관, 카약 체험, 블루라군


탁발


탓루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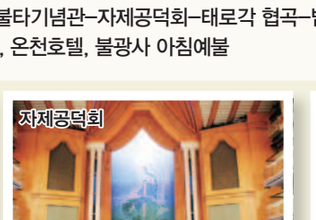

꽝시폭포

대만 완벽 순례 5일

대만 최대 불교성지 불광산사 등 대표 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자제공덕회-태로각 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체크포인트 : 5성 호텔, 온천호텔, 불광사 아침예불


불타기념관


자제공덕회


태로각 협곡

만해 스님 창간 '유심', 詩문예지로 재창간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9월 1일자로 '유심' 재창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배를 띄우는 흐름은 그 근원이 멀도다. 송이 큰 꽃나무는 그 뿌리가 깊도다.〈중략〉 가자 가자 사막도 아닌 빙해도 아닌 우리의 고원(故園) 아니 가면 뉘라서 보랴 한 송이 두 송이 피는 매화."

1918년 9월 1일 창간한 〈유심(唯心)〉 제1호에 수록된 만해 스님의 창간사 '처음에 씀' 중 일부다. 배를 띄워 매화를 찾겠다는 만해 스님의 창간사에서 당시 대중들의 의식을 계몽시키려했던 스님의 서원을 알 수 있다.

국판 60여 페이지의 〈유심〉은 불교 교양지를 표방했다. 잡지의 글들은 주로 만해 스님이 썼지만 박한영, 백용성, 권상로, 이능화, 김남전, 최남선, 최린, 현상윤 등도 주요 필자로 참여했다.

박한영은 '타고르의 시관'을, 만해 스님은 타고르의 '생의 실현'을 번역했고, 3 · 1운동의 가장 선봉에 섰던 최린은 〈유심〉 창간호에 '시아수양관(是我修養觀)'이라는 제하의 글을 썼다. 육당 최남선은 '동정(同情)바늘 필요(必要) 잇는 자 되지 말라' 등 청년의 수양과 나아갈 지표를 제시하는 글들을 발표했다. 〈유심〉은 당시에는 드물게 '문예공모' 코너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유심〉 제3호에는 '당선 문예란'을 통해 그동안 응모했던 결과를 발표 · 시상하기도 했다.

〈유심〉 창간호 이후 제2호는 그해 10월, 제3호는 12월에 잇달아 발행된다. 하지만 〈유심〉은 일본 총독부의 탄압과 3 · 1운동 준비로 제3호로 중단됐고, 1944년 만해 스님이 원적에 들 때까지 복간되지 못했다.

〈유심〉이 다시 세상에 빛을 본 것은 설악 무산 스님이 2001년 다시 발간하면서부터다. 당시 무산 스님이 이끌던 만해기념사업회는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유심〉 복간을 결정했고, 이내 한국 최고의 문학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유심작품상을 제정하면서부터는 신인 문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호(통권 92호)에서 종간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후학 문인들이 〈유심〉을 재창간하고 시 전문 계간지로 출발을 알렸다.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권영민, 이하 선양회)는 8월 29일 서울 종로 소재 선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해 스님이 〈유심〉을 창간했던 1918년 9월 1일에 맞춰, 2023년 9월 1일자로 〈유심〉을 재창간하고 재창간 1호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9월 1일자로 〈유심〉을 재창간하고 재창간 1호를 발행했다. 8월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진 왼쪽부터)권영민 선양회 이사장, 신달자 〈유심〉 편집주간, 이숭원 · 신철규 편집위원이 재창간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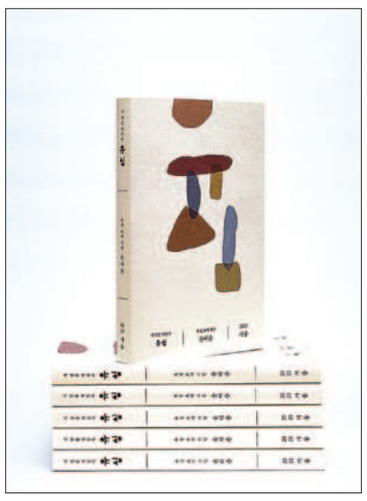
"만해 · 무산 스님 사상 바탕 인간 정신 회복 앞장설 것" 내년부터 '무산賞' 제정운영 9월 23일 기념 시낭송회도

권영민 선양회 이사장은 "작금의 사회는 각박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어서 인간성 회복이 시급하다. 그렇기에 만해 스님의 민족의식과 자유 평등 사상, 무산 스님이 강조해오신 조화 상생의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문학 매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 선지식의 사상에 기반한 웅숭깊은 문학 정신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양회는 〈유심〉을 재창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창간된 〈유심〉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문인인 신달자 시인이 편집주간을 맡았으며, 편집위원으로는 이숭원 문학평론가 · 김지윤 시인 · 신철규 시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창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회의를 거듭했고, 만해 · 무산 스님의 문학 정신을 잡지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각고의 노력이 〈유심〉을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도록 했다.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표지, 편집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개편했고, 에세이와 인터뷰 등도 추가했다.

재창간호의 초대 시인은 제주불교방송 총괄국장이기도한 문태준 시인이다.



〈유심〉은 1918년 9월 1일 창간됐다. 이에 맞춰 9월 1일자로 재창간된 〈유심〉의 모습. 현대적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문태준 시인은 1994년 등단 이래 동서문학상 · 유심문학상 · 미당문학상 · 소월시문학상 · 정지용문학상 등 국내 걸출한 문학상을 휩쓴 불교 문인이다.

문태준 시인을 재창간호 초대 시인으로 선정한 데 대해 신달자 편집주간은 "문 시인은 훌륭한 시인이며 〈유심〉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문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창간호에는 구중서 · 유자효 · 홍사성 등이 신작 시조를, 오세영 · 정호승 · 임연태 등이 신작 시를 발표했다. 특히 '다시 읽는 무산 시'는 무산 스님의 시와 이에 대한 단상을 읽을 수 있기에 눈길을 끌었다. 무산 스님의 대표작인 '아득한 성자'에 대해 이숭원 편집위원은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면 하루살이가 성자로 보인다. 그것도 아득히 높은 자리의 성자로. 무산 스님은 일상의 관념을 뒤집어 하루살이가 성자가 되는 불이(不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상찬했다.

'다시 읽는 만해 한용운'에서는 백승호 국민대 교수가 현대 우리말로 번역한 〈조선불교유신론〉을 수록했다.

신달자 편집주간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심이다. 인간이 느끼고 확장해 나가는 세계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잡지를 만들고자 한다"며 "〈유심〉은 앞으로 남을 우리로 받들어, 필자와 읽는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잡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철규 편집위원은 "(〈유심〉이) 그윽한 멋과 은은한 맛을 잃지 않는 잡지가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재창간 소감을 밝혔으며, 김지윤 편집위원도 "루쉰은 길을 희망에 비유했다. 함께 걷는 걸음들이 겹쳐지며 더 많은 마을들이 모이고 더 넓은 길, 더 멀리까지 펼쳐질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양회는 〈유심〉 재창간을 기점으로 무산 스님의 문학정신을 선양 · 계승하기 위해 내년부터 '무산상(霧山賞)'을 제정 · 운영키로 했다. 권영민 이사장은 "내년부터 운영될 '무산상'은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50~60대 문화예술인을 시상하게 될 것"이라며 "유심작품상은 젊고 활력있는 30~40대 중진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학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양회는 〈유심〉 재창간을 기념하는 시낭송 음악회를 오는 9월 23일 서울 성북구 무산선원에서 연다. 시 낭송회는 재창간호 수록 시인들의 신작 시 낭송과 가수 최성수, 래퍼 치타, 서울대 음대 현악4중주단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연문도회 '제9회 불화이야기'展

9월 5~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0월 13일까진 대구 불광사서



전연호 作 '104위 신중도'.

불교미술을 전승하고 있는 본연문도회 '불화이야기'가 회원전을 연다.

본연문도회 '불화이야기'는 9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39일간 '제9회 불화이야기' 전시회를 대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본연문도 기존 작가들을 비롯해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불화반 학생 등 회원 27명의 불화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1998년 결성된 '불화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본연 전연호 선생의 지도 아래 20년 넘게 불화를 계승 · 연구하고 있으며, 뛰어난 불화작가들을 배출했다. 기도와 수행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며 예술 작품으로써 불화를 알리기 위해 2년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제9회 불화이야기 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13전시실에서 열리며, 9월 11일부터는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으로 장소를 옮겨 10월 13일까지 전시회가 이어진다.

전연호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 이사장은 "어려운 것은 버리고, 보다 쉽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불화이야기 회원들은 전통을 계승 · 발전시키는 주역들"이라며 "앞으로 '불화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한국 불교미술 발전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9월 16일 가을 발표회

동국대 혜화관 세미나실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남수영)는 9월 16일 오전 9시 서울 동국대 혜화관 세미나실에서 '2023 가을 논문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기무라 키요타카 도쿄대 명예교수가 '화엄사상연구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현대 공감이론의 주요 논쟁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고찰과 불교윤리-불교 윤리의 자비 관념을 중심으로(오현희, 동국대) △일본 타이마만다라의 조성과 판본의 유통(이승희, 순천대) △불교와 칸트의 철학적 체계 비교 연구-공과 선험성 개념을 중심으로(표석환, 동국대)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이충현(동국대), 김선희(동국대), 류제동(서강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의 학회 후원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하동 쌍계사 불교조각, 면면을 살피다

한국미술사연구소, 10월 7일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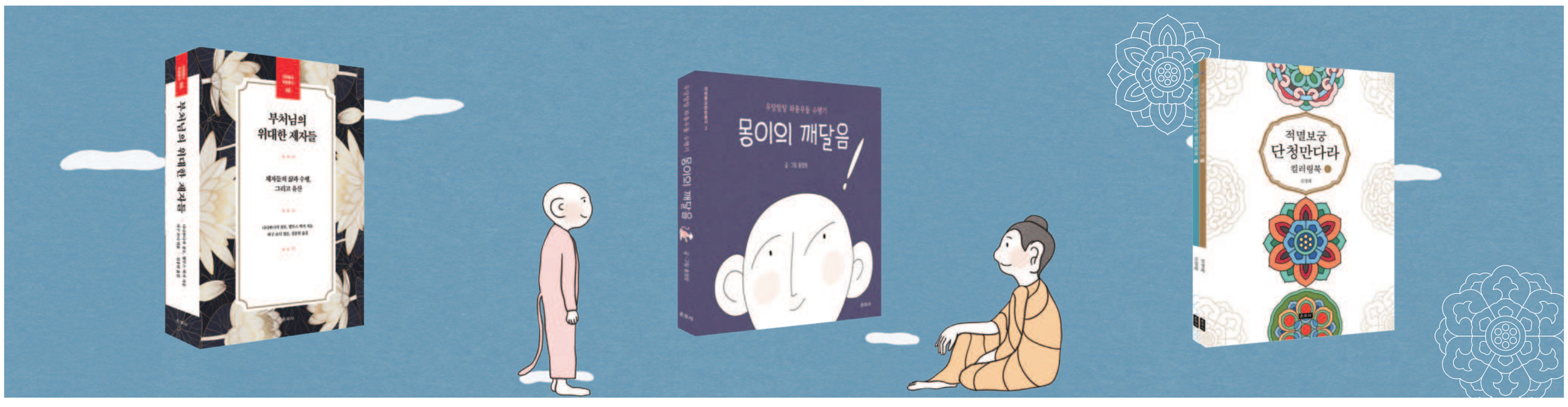
하동 쌍계사 불교조각들의 면면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10월 7일 오후 1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내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천년선찰 하동 쌍계사의 불교조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의 축사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쌍계사 불상의 성격과 대웅전 삼세불상 및 고려 건칠아미타불상의 종합적 연구' 주제 기조발표로 시작되며, 쌍계사 주요 불상들의 연구논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논문은 △쌍계사 나한전 십육나한상의 연구(손영문, 문화재청 문화재상임전문위원) △쌍계사 명부전의 지장시왕상 연구(심주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행정관) △쌍계사 사천왕상의 연구(주우완, 우석대 교수) △쌍계사 문수 · 보현동자상 연구(고승희, 前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이분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팀장, 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이수예 동국대 교수,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참여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문무왕 前동명대 교수의 '쌍계사의 조선시대 역사' 논문발표도 이뤄진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음을 증명하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을 통해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냐나뽀니까 장로, 헬무스 헥커 지음/김충현 옮김/신국판/728쪽/값 40,000원

수행 입문자를 위한 명상 카툰!

몽이의 깨달음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좌충우돌 몽이의 생각과 성찰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정운 글, 그림/사륙배판 변형/236쪽/값 17,000원

'5대 적멸보궁'의 단청을 그리다!

적멸보궁 단청만다라 컬러링북 1 2

통도사, 중대사자암, 봉정암,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적멸보궁에 그려진 아름답고 성스러운 단청을 54컷의 일러스트로 만들어 누구나 색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희 지음/국배판/각권 64쪽/각권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30~9/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초기불교 입문 : 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6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3	대반열반경(불교경전 12)	강기희 역	민족사	8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4	관세음보살 42수주 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그림	운주사	9	초기불교 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더 나은 오늘을 위한 불교 강의 : 계초심학인문 읽기	성태용	북튜브	10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법정	책읽는섬

책세상

위대한 스승 밑엔 위대한 제자 있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 헬무스 헥커 지음
비구 보디 엮음 / 김충현 번역
운주사 / 3만6000원

냐나뽀니까, 헬무스 펴낸 〈법륜〉
비구 보디가 한 권으로 엮어내
부처님 제자 24명 면면들 조명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 삼존상 중 마하가섭상(사진 왼쪽)과 아난존자상(사진 오른쪽)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에는 흔히 삼보(三寶)로 불리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를 따르는 승가이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담은 책들은 수없이 나와 있는 반면, 부처님 당시의 승가(구성원)를 다룬 책은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제자들의 삶과 수행, 그리고 유산〉은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독일 출신 수행승 냐나뽀니까와 불교 작가인 헬무스 헥커가 펴냈던 부처님 제자 전기 '법륜'을 미국불교협회장 비구 보디가 한 권으로 엮었고 김충현 춘천불교방송 총국장이 번역한 것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함께하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한 수행자들 중 가장 뛰어난 제자 24명의 삶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빨리 경전과 주석서들의 기록을 토대로 풍성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신분, 성별, 나이, 계급, 재산, 배움, 영적 능력 등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어떻게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삶과 깨달음의 과정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진리의 길임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그 길은 출가자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우리 자신도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번뇌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열반이야말로 부처님의 목표이면서 모든 불자들의 목표이다. 부처님이 발견하고 가르치신 진리(담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이며 정확하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영원한 행복, 열반의 길을 찾아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사유와 실천과 영적 능력을 바꾸어 열반으로 이끌어줌으로써 이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이 책은 생로병사로 인한 괴로움을 겪던 이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떤 수행과 실천을 통해 열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책에 소개되는 24인의 제자들은 누구일까. 부처님의 상수제자로서 지혜제일로 불리는 사리뿟따(사리불)와 신통제일로 불리는 마하목갈라나(대목건련), 부처님 열반 후 승단을 이끌어간 마하깟사빠(대가섭), 부처님의 시자이자 법의 보물창고 역할을 한 아난다(아난), 천안제일 아누룻다(아나율), 논의제일 마하깟짜야나(대가전연)를 비롯하여, 여성 제자들로는 가장 위대한 후원자로 꼽히는 위사카,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고 왕비가 된 말리까, 지혜가 으뜸인 비구니 케마, 빠르게 최상의 지혜를 이룬 밧따 꾼달라케사, 죽은 아이를 안고 약을 찾아다닌 끼사고따미,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쏘나, 세존의 여동생 난다, 자비의 화신 사마와띠 왕비, 계율에 정통한 비구니 가운데 으뜸인 빠따짜라, 몸 팔던 여인 암바빨리, 청정한 믿음을 지닌 웃따라와 기녀 시리마, 세 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씨다씨 등을 소개한다. 또한 살인자였던 앙굴리말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시주자였던 아나타삔디까(급고독 장자), 마지막으로 법을 설하는 데 으뜸인 찟따 장자, 여섯 번 환속하고 일곱 번 출가하여 끝내 아라한과를 성취한 찟따 비구, 부부로서 사랑과 수행의 조화를 보여준 장자 나꿀라삐따와 아내 나꿀라마따도 있다.

이렇듯 책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태어난 배경도, 살아온 과정도, 직업이나 나이, 성별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겪고 있는 괴로움도 다르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갖춰 무명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한 존재로서 하나가 된다.

이들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서 현재의 우리와 하등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수행하여 열반을 성취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열반에 이르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위대한 스승 아래서 수학한 위대한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희망의 메시지다.

불교 잡지 톺아보기

조선 스님들은 왜 가마를 메었나

'월간 불광' 9월호



'월간 불광' 9월호(통권 587호)는 '조선의 B급 스님들'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사찰과 스님들의 일상을 다뤘다. 조선시대에는 사찰과 스님들이 많은 부역(賦役)을 담당했다. 스님들이 산성을 축조하거나 방어하는 신역(身役)을 담당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도 종이, 부채와 각종 채소를 관아에 납품했다.

스님들이 해야 했던 신역 중 가장 고된 일은 가마를 메는 일이었다. 사대부들이 금강산, 지리산, 변산을 유람할 때면 스님들이 가마를 태우며 유람에 동행했다. 선비들이 산속에서 머무는 곳 역시 사찰이었다.

'월간 불광' 9월호에서는 △가마를 멘 스님들 △두부를 만드는 스님 △시체를 묻은 매골승 △양반가의 제사를 지낸 스님 △종이 만드는 스님 △왕조실록을 지키는 스님들 △계(契)를 통해 사찰을 지킨 스님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맡은 바 일을 해왔던 스님들의 일상을 다뤘다.

조선은 양인(良人)들의 출가를 제도적으로 막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적지 않은 출가자가 존재했고 사찰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숭유억불'이라는 잣대만으로는, 혹은 개개인의 불심(佛心)만으로 조선시대의 불교를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시대의 고역을 감내하면서 사찰을 지켜왔고, 민중의 삶을 보듬어 온 조선의 'B급 스님들'의 삶을 '월간 불광' 9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챗봇 시대에도 불교는 삶의 나침반

'월간 불교문화' 9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월간 불교문화' 9월호(통권 제277호)는 '챗봇 시대 불교'를 다뤘다. 챗봇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 인공지능으로서, 특히 챗GPT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의 사고 방식과 챗봇의 기능적 한계 사이의 차이를 탐구하고, 불교의 가르침과 챗봇 기술의 융합이 어떻게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는 '챗GPT란 무엇인가'를,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는 '챗봇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를 다뤘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챗봇은 불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에서 챗봇이 불교적 의미의 자비로운 품성을 갖추면 인간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챗봇이 놀라운 수준의 설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설법에는 공감과 공유의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 보일 스님(해인사승가대학 학장)의 '챗봇 설법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도 눈길을 끈다.

하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캠페인에는 허남진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과소비의 적절한 기준을 찾아 미래 사회를 위한 과학적 소비를 할 것을 제안했다. 신성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449호 10면 "역경보살' 월운 대강백 일생 담다' 기사 제목 중 "易經 일생' 면면들'을 "譯經 일생' 면면들'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11면 '가장 정확한 '치문경훈' 易書'를 '가장 정확한 '치문경훈' 譯書'로 바로잡습니다.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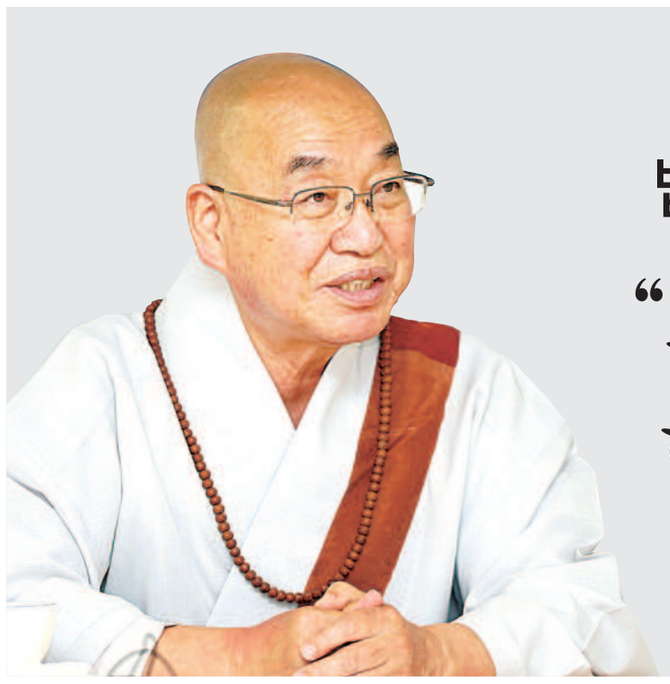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법륜 스님이 묻다
"그댄 부모인가요, 학부모인가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엄마수업
법륜 지음 / 하니박 그림
정토출판 / 1만6800원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안내
"아이 문제는 부모서 비롯"
12년 전 출간본 개정증보해
즉문즉설 고민 사례도 담아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언젠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건물 외벽에 크게 걸린 문구.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을 압축해놓은 글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혼자선 그릴 수 없는 법.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연기법을 설하며 세상만물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친구, 직장동료, 친척 다 소중한 인연이지만 '내 아이'보다 먼저인 것은 없다. 성인에서 부모라는 또 다른 이름을 만드는 일. 자식의 탄생은 그 어떤 부모든 인생에서 가장 벅찬 순간일 것이다.

"잘 몰라서 그래.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명대사 가운데 하나인 배우 성동일의 읊조림.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린 이 대사는 그만큼 아이를 잘 키워내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걸 보여준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모습, 좋은 뜻으로 한 조언에 말대꾸하는 모습, 때로는 집 밖에서 어이없는 사고를 치고 오거나 대화마저 거부하는 아이의 사춘기를 접할 때면 부모는 고민에 빠진다. 내 잘못인가, 아이의 잘못인가.

이 시대의 힐링멘토로 꼽히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라고 화두를 던진다. 많은 엄마 아빠가 부모 노릇은 포기하고 학부모 노릇만 하고 있다는 경종이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화가 나면 공격성을 보이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한 엄마의 하소연에 스님은 부모로서의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은 없고,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일갈하는 법륜 스님.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창 해맑은 얼굴로 즐겁게 뛰어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격적이란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내치기만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법륜 스님은 이 같은 배경으로 엄마의 스트레스와 분노를 꼽는다. 특히 근본 원인은 남편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럴 때는 부모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라고 권한다. 아이들은 모든 촉수가 부모를 향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좋은 학교나 학원에 보내주는 게 아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법륜 스님의 〈엄마수업〉은 12년 전 출간한 책을 다시 증보해 출간했다. 최초 출간 당시 꼬마아이는 청소년이나 성년이 됐고, 그의 엄마도 중년이 되거나 할머니가 됐을 터. 〈엄마수업〉도 오늘의 엄마와 아이에게 맞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추가해 다시 내놓은 것이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면서 엄마로, 부모로 살아가기가 갈수록 혼란스러운 날들. 법륜 스님은 "인공지능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환경에 따른 현상은 다양하게 일어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본질은 하나"라고 역설한다. 농사의 이치를 알면 농사가 힘이 덜 들고 재미있듯, 누구든지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애쓰며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그 속에서 '엄마도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은 △1장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2장 부모의 성품이 아이를 물들인다 △3장 공부 스트레스가 아이를 망친다 △4장 부모는 변화하는 세상 속 자녀의 등불이다 △5장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 닦는 법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1200회가 넘는 즉문즉설을 이어오며 받은 부모들의 다양한 고민과 사례도 적절하게 담아 독자의 공감대를 자극한다.

법륜 스님은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만, 애들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엄마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자식 때문에'라고 이유를 다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반에서 5등 하면 1등 못한다고 걱정인데, 10등 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잘하는 겁니다. 10등 하면 공부 못한다고 하는데 꼴찌 하는 아이에 비해서는 잘하는 거잖아요. 꼴찌 하는 아이가 문제라고 하지만 학교 안 가겠다는 아이에 비해서는 학교에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학교 안 가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사고 치는 아이에 비해서는 학교만 안 갈 뿐이지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더 큰 불행을 겪어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행복인 줄 압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행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에 눈뜨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168p)' 중에서

누구나 나이 듦에는 '초심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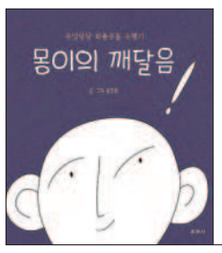
나도이 나이는처음이라
에즈라 베이다, 엘리자베스 해밀턴 지음
추미란 번역
담앤북스 / 1만6800원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평생의 화두다. 나이 듦의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다. 육체적 고통은 물론, 불안, 무기력, 상실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도 끊임없이 부딪친다. 살면서 처음 겪는 종류의 어려움이라, 그것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 하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어가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단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나이 듦에 관한 책들은 '느리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독자들 역시 노화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궁금해한다. 하지만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나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나이 듦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자 마지막 장인 노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초심자'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임은호 기자

우당탕탕 좌충우돌 수행기



몽이의 깨달음
용정운 글 · 그림
운주사 / 1만7000원

예전부터 사람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곤 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원숭이의 모습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요동치는 인간의 마음이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말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멀리멀리 달아나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인 마음이 이처럼 요동치니 내 삶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행이나 명상은 이 마음을 고요히 한곳에 붙잡아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최종 도착지가 깨달음이고 열반이다.

〈몽이의 깨달음〉의 주인공인 '몽이'는 원숭이를 수행자로 의인화한 것이다. 몽이는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행자다. 수행자 몽이는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은 결코 불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냥 몽이의 생각이나 느낌, 깨우침 등을 따라가다 보면, 나와 내 마음과 내 삶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쉽고 편안함 속에 담긴,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움이 입문을 넘어 깨달음의 세계로 깊숙하게 이끌어줄 것이다.

임은호 기자

깨어남으로의 초대



고요한 현존
레너드 제이콥슨 지음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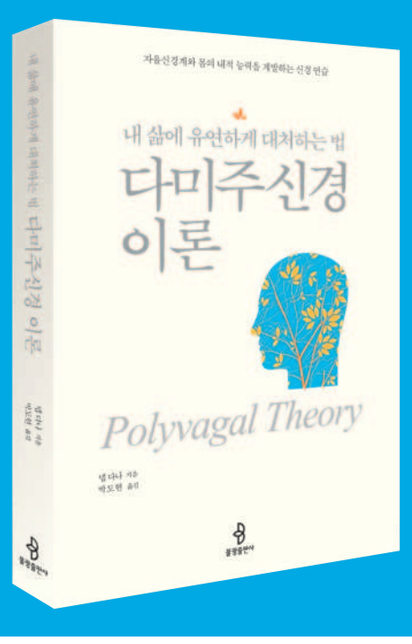
〈지금 여기에 현존하라〉의 저자인 레너드 제이콥슨의 '현존' 3부작 중 첫 번째 책. 온갖 괴로움과 불만족의 원인인 '마음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삶의 진실과 현실인 '지금의 세계'에 머물면서 참된 자기인 고요한 현존으로 깨어나도록 안내한다.

환상에 불과한 '마음의 세계'와 달리, '지금의 세계'는 실제로 있는 참되고 완전한 세계이며,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세계는 우리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충분히 오래 현존할 때 드러나며, 이 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 지은이는 지금 여기에 깊이 현존할 때 열리는 이 세계를 땅 위의 천국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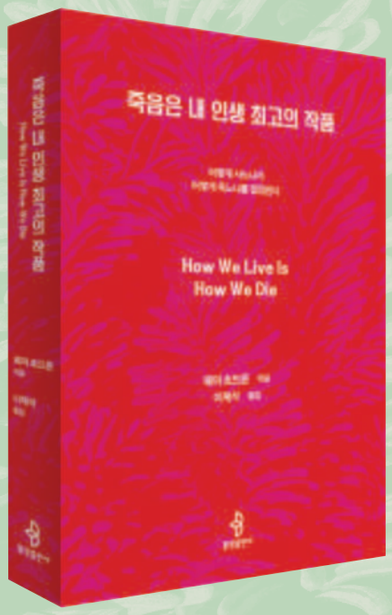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 주며,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무의식적인 믿음들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소개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영적 진실들에 눈을 뜨도록 돕는 심오한 영적 통찰을 시처럼 간결한 형식으로 전한다.

2001년에 발행된 〈마음은 도둑이다〉의 원서 개정판을 다시 번역하고 제목을 바꿔 새롭게 펴내는 책이다.

임은호 기자

우리 안에 고통을 이겨내는 타고난 힘이 있다!
내 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신경과학,
'다미주신경 이론'의 모든 것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최선의 방식으로 삶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주는 신경 연습!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신경과학 신경심리학 분야 1위
내 삶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다미주신경 이론
뎁 다나 지음, 박도현 옮김
304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인생의 태도로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기적 같은 지혜!
죽음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페마 초드론이
티베트불교에서 발견한 삶과 죽음의 찬가(讚歌)이자,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마 초드론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자 '마음 전문가'
'왓킨스 북'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북미 지역 첫 티베트불교 도량인 감포 사원(Gampo Abbey) 원장

© christine alicino
페마 초드론 지음 · 이재석 옮김 | 336쪽 | 20,000원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2 회광반조 1



▶한줄 요약
로봄인쿠로 들어선 이 기자 일행은 마을에서 아소카 왕이 세운 사리탑에 대한 전설을 듣게 된다. 전설은 붓다와 데바닷다의 이야기였다.

데바닷다는 붓다를 해치려했지만…

-멀리 가지 마.

물고기처럼 헤엄쳐 나가는 그녀를 보며 내가 말했다. 갑자기 싸아한 냉기가 전신을 엄습했다.

-나 잡아봐요.

그녀가 영화 속의 여배우처럼 웃으며 소리쳤다.

헤엄에 자신이 없던 나는 추운 아이처럼 팔짱을 끼며 소리쳤다.

-멀리 가지 말라니까!

그녀가 점점 멀어졌다. 출렁거리고 있는 것은 부표인가 그녀인가?

갑자기 그녀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내가 소리쳤다.

그녀가 계속 허우적거렸다.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살려줘요.

그녀가 소리쳤다.

그제야 누군가 물속에서 그녀를 당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번쩍 눈을 떴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벌써 차창 밖은 어둠이 밀려와 있었다. 그녀를 물속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꿈은 모질다.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향해 나는 잠수부처럼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을 잡은 검은 물체를 주먹으로 쳤다. 검은 물체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끌었다. 누군가 건져낸 그녀 앞에서 울고 있는 사내는 분명히 나였다.

-정애야!

왜 그때 그녀를 향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까? 움직여 그녀와 함께 갈 수 있었다면 차라리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내지도 않았을 것을. 그래서 붓다는 인생을 고라고 했던가?

창밖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자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를 골고 있는 건 심 작가였다. 미카엘 기자는 작가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송 서화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손으로 턱을 바친 채 차창 밖에 시선을 붙박고 있었다. 내가 부스럭거리자 시선을 돌렸다.

-몹시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송 서화가가 말했다.

-그러네요. 왜 좀 눈 붙이지 않고요?

-아직은 견딜 만하네요.

사알리 역에 닿은 것은 새벽 5시. 로봄인쿠로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길을 물어가며 세 번 정도 갈아타서야 로봄인쿠로로 들어설 수 있었다. 소읍이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더니 산 너머를 가리켰다.

-저 산 너머에 있다오.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다. 잠시 걷다 보니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마을 아낙들이 모여 빨래하고 있었다. 목이 말랐던 참이라 물을 마시고 가자고 했다. 넷이 다가들자 아낙네들이 힐끔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목이 마르군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뚱뚱한 오십 대의 여자가 볼살을 실룩이며 그러라고 했다. 넷이 물을 마시고 걷는데 중년 사내가 삽으로 땅을 파놓고 그 속에 불을 피우고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었다. 구덩이 주위의 풀을 모두 베어 말끔했다. 불길이 풀숲으로 번질까 해서 손을 본 것이 분명했다.

-아주 불길이 사납구먼요.

송 서화가가 이상한 정도로 호기심을 나타내면 그에게로 다가갔다. 내가 살펴보았더니 그럴 만도 했다. 사내가 태우고 있는 것이 종이에 그려진 그림과 노트였다. 사내가 다가오는 송 서화가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생김새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닌 것을 단박에 알아챈 표정이었다.

-필요 없는 것들이라 태우고 있다오.

-아이고 아주 값진 것 같은데….

-내 아들놈 귀신이 붙었는지 이런 것이나 갖고 놀고 있으니…. 그래 내 오늘 큰맘 먹고 태우고 있는 거라오.

-그런데…?

송 서화가가 아랫마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을 끊었다. 나는 그의 말을 더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왜 집이나 공터, 들판에서도 태울 수 있을 터인데 산으로 올라 태우고 있느냐는 말이었다.

-제 놈이 아끼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자 아들이 눈을 뒤집었다오. 설마 아비가 산으로 올랐을 줄이야 어떻게 알겠소.

사내가 마지막 그림을 태우고는 시원하다 하는 표정을 짓다가 성 서화가와 그의 일행을 새삼스럽게 돌아보았다.

-보아하니 이 나라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산 너머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요즘 그 우물에 관심을 내는지 몰라.

사내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 서화가가 물었다.

-그 우물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오?

-우물이라니요?

-아니오? 난 또….

아랫마을에 붓다 생존 시 제세 중에 물을 긷던 곳이 있다고 하였다. 요즘 그 우물이 소문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무상사(無上士)라는 말이 별스럽게 들렸다. 무상사는 석가모니 붓다의 다른 호칭이다. 붓다는 정(情)을 가진 존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친 호칭이 무상사다. 여래나 부처, 붓다라고 부르지 않고 정을 가진 사람으로 평등(平等)하게 본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았다.



삽화 · 김상규

이내 그의 음성이 이어졌다.

-그럼 그 마을에 왜 가시오? 아, 그 수토파!

-수토파?

-우물 옆에 있는 아소카 왕이 세운 사리탑을 보러 왔구려.

송 화가가 넘겨짚는 사내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 네.' 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하긴 신묘하긴 신묘하지.

-네?

-그 안에 무상사의 사리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가끔 그 속에서 영서(靈瑞)가 일어난다오. 그것이 명계의 신들이 내려와 경배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귀 밝은 이는 그때마다 하늘에서 연주되는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거든. 하기야 거기가 미륵보살님의 본거지니 그럴 수밖에.

-그렇게 유명한가요?

송 서화가의 물음에 사내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그 탑의 내력도 모르고 무작정 보러 온 것이오?

-와 본 이들이 자꾸 가보라고 해서.

송 서화가가 어울리지 않게 뒷머리를 끄적거렸다. 사내가 기가 차다는 듯이 잠시 아랫마을을 바라보고 섰다가 송 서화가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탑 뒤쪽에 범지(梵志)라는 연못이 바로 그 연못이라오.

-연못?

송 서화가가 되뇌자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사내가 송 서화가 앞으로 돌아섰다.

-무상사가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시작된 사내의 말은 이러했는데 내게는 무상사라는 호칭이 역시 별스럽게 들렸다.

무상사 생존 시 바라문이 음녀를 죽이고 부처님을 비방한 장소가 있는데 그 연못이 바로 그곳이었다. 그 마을에 한 음녀가 살았다. 외도에 홀린 여자였다. 그녀는 외도의 말에 홀려 무상사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다가 고목 옆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외도들은 얼씨구나 하고 무상사와 그녀가 정을 통해 그녀를 죽인 것이라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데바닷다라는 무상사의 피붙이가 있었는데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재능만은 출중했다. 무상사의 아내가 처녀였을 때 사카족 야쇼다라 공주를 사이에 두고 연적 관계에 있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무예 시합에 패하고 야쇼다라를 무상사 즉 싯달타 왕자에게 빼앗김으로써 그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되었는데 싯달타가 궁을 나가 깨달음을 얻은 뒤 카필라성으로 돌아오자 그에 교화되어 같은 왕족 출신인 바드리카, 난타, 아니룻다 등과 함께 출가했다.

데바닷다는 유독 지식욕이 강했다. 시기심 또한 강한 인물이었다. 그의 지식욕은 무서울 정도였다. 출가하고 언제나 무상사 곁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무상사는 그것을 나무라곤 했다.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때까지도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기 아집이란 것이 별다른 게 아니었다. 자기식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불법을 효도했다. 원채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 이것저것 어깨너머로 들은 지식을 이용해 도반들과 불법을 비판하기를 좋아했고 도반들은 그의 폭넓은 지식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상대하기를 꺼려하였다. 그만큼 아는 게 많았다는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무상사는 데바닷다를 불러 호되게 나무랐다. 끝내 그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야심을 품고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당시 천축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마가다국 라자가하에서 빔비사라 왕 등 여러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무상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무상사여, 그대는 이제 연로하여 편히 쉬실 때가 되었습니다. 차후 제가 교단을 통솔하겠습니다.

무상사는 분수를 모르는 그를 나무랐다. 그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자신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에게도 맡기지 않은 교단을 맡기라고 나섰으니 나무랄 만도 하였다.

이에 분개한 그는 교단을 뛰쳐나가 빔비사라 왕의 아들 아쟈타삿투를 찾아갔다. 왕자는 부왕이 석존을 믿고 외호하는 것과는 반대로 교단 내에서 유력한 인물로 믿어지는 데바닷다를 주목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에게 왕위를 찬탈할 것을 꾀하였다.

-이제 당신은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도 무상사를 없애고 교단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권력욕이 무척 강했던 왕자는 그의 말대로 왕위를 찬탈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무상사를 살해하려 했다. 기회를 엿보던 그는 자객을 보내 무상사가 지나는 길목의 산 위에서 큰 돌을 떨어뜨렸다. 무상사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오히려 자객들이 무상사에게 교화되고 말았다.

그는 며칠 후 포악한 코끼리를 보내 무상사를 죽이려 했다. 역시 코끼리도 주인 앞에 선 개처럼 무상사에게 순종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수포가 되자 그는 베살리 출신의 수행자 여러 명을 회유하여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 무상사의 제자 사리풋타와 목갈라나가 찾아가 수행자들을 설득했다.〈계속〉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⑰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



▶한줄 요약
중도를 닦는다 함은 우리 마음에 고요함[止]과 또렷또렷함[觀]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중도로 수행하면 혼란도 고요하다

현대인의 큰 괴로움 중 하나가 시끄러움, 소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산다. 도시의 미세 먼지와 함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시끄러움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이 절실한 현대인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는 도시의 현대인들에겐 한적한 전원생활이나 자연 속의 캠핑 또는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로망이다.

우리는 흔히 고요한 곳을 가면 '절간 같다' 고 말한다. 그만큼 사찰, 절은 조용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현대인들이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산이나 산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소음에서 벗어나 치유를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 유행하는 것도 이러한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누리고자 함이다. 불교의 참선 명상도 고요함을 상징한다. 절의 선방하면 누구나 잡념을 비우고 고요함을 누리고 싶어 한다.

고요함만을 공부로 생각하면 병이다.

참선 명상하면 누구나 고요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세상에서 참선 명상 지도하는 분들이 고요함이 명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남방 위빠사나 사마타 명상법을 안내하는 분들은 눈을 감아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고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여 번뇌 망상을 일어나지 않게 명상하도록 지도한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일단 시선이 차단되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마음에 번뇌 망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들숨 날숨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호흡 집중 명상을 배운 어느 불자는 집에서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자꾸 들려서 집중이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집 밖의 자동차 경적 소리나 도시의 소음들, 그리고 윗집의 화장실 물내리는 소리, 강아지가 짓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려서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평소 생활할 때는 그런 소음들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았는데, 명상하려고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더 소음이 크게 들리어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명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절이나 명상센터에 가서 해야겠다고 말한다.

또 어느 불자는 도시에 있는 한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배웠는데, 그 명상센터는 명상할 때 창문은 햇빛을 완전 차단하는 커튼을 치고 실내 조명을 다 끄고 촛불만 켜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캄캄한 명상실에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명상을 하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 힐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고 어두운 명상실에서 명상을 잘 하고 명상센터를 나서면 바로 도시의 소음이 더 크게 들렸다고 한다. 더구나 정갈하고 고요한 명상센터에 있다가 집으로 가면 가족이 보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에 설거지와 빨래 거리가 잔뜩 쌓여 있으니 스트레스와 짜증이 더 나는 것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그분은 시끄럽고 번잡한 집이나 직장생활을 할지더라도 늘 고요한 절이나 명상센터가 그리워져 빨리 참선 명상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한 것일까? 참선 명상을 하고 싶고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가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편향된 것으로 불교의 정견이라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고요함만을 가르친 잘못된 참선 명상

사실 이렇게 고요함만을 공부로 생각하는 참선 명상 전통은 옛날에도 있었다. 조사선 전통에는 화두 참선법이 중심이지만, 묵조선이라는 참선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특이하게도 일본 선종에는 이 묵조선(默照禪)하는 분들이 많다.



고양 흥국사 흥국선원.

고요한 명상 후 소음은 더 스트레스
시끄러운 곳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중도될 때 평상심도 계발되는 것



고양 흥국사 선명상실에서 선명상을 배우는 불자들.

묵조선은 말 그대로 묵묵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보는 좌선 수행이다. 시끄럽고 번잡한 일상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좌선을 강조한다. 묵조선에서는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고요히 좌선하면서 번뇌망상을 비우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1분 앉으면 1분 부처,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라고 한다.

묵조선 같이 참선 명상하는 이들에게는 깨달음이 없다. 이미 깨달아 있다고 보고 고요히 않으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참선 지도자들은 이렇게 참선을 안내한다.

이와 같은 묵조선 계통의 견해는 간화선이 정립된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화두 참선법을 제창한 대혜선사는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만 있는 참선 수행자들을 '묵조사배(默照邪輩)' 라 하며 묵조의 삿된 무리라 비판하였다.

대혜선사의 고요한 공부에 대한 비판

간화선을 제창한 대혜선사가 고요함만을 닦는 수행자에게 바른 참선을 안내하는 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당신은 고요한 공부를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사물을 접하는 곳에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합니까?

만약 편안하고 한가하지 않다면, 이것은 고요한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했으되 오히려 힘을 얻지 못했다면, 마땅히 빨리 힘 얻는 공부를 구해야만 바야흐로 평소의 허다한 공부를 등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고요한 공부를 하는 것은 다만 시끄러운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히 시끄러운 때에, 도리어 자기 마음이 시끄럽게 되는 피해를 입는다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한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 〈서장〉 24. 유통판 언충에게 답함(2)

이 편지는 묵조 공부를 한 지 20년이 되는 한 재가 수행자에게 바른 참선을 일깨우는 대혜선사의 글이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 참선 명상을 해서 공부 힘을 얻은 수행자라면 시끄럽고 번다한 곳에 가더라도 한결 같아야 한다. 그런데 고요한 곳은 좋아하고 공부할 곳이라 여기면서도 시끄럽고 번거로운 집이나 직장은 공부할 곳이 아니라 여긴다면 이것이 어찌 바른 마음 공부라 하겠는가?

하나 되는 중도 삼매를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처럼 바른 공부로 생사의 괴로움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는 수행자라면 중도 공부를 해야 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에 상관없이 참선 명상할 수 있어야 한다. 시끄러움과 고요함이라는 양변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화두 참선이다. 대혜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힘을 덜어서 고요하고 시끄러운 데서 한결같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단지 조주스님의 무자(화두)를 뚫으십시오. 홀연히 (화두)를 뚫으면 바야흐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둘이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 〈서장〉 24. 유통판 언충에게 답함(2)

화두 참선은 이와 같이 간단하다. 시끄럽고 조용한 장소, 집이나 선방, 명상실, 거리, 지하철 등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화두 하나에 집중하면 바로 마음이 중도가 된다. 이렇게 화두 삼매가 체험되면 될수록 마음이 중도가 되어 시끄럽고 고요함에 상관없는 평상심이 계발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였듯이 우리도 중도를 닦아야 한다. 중도를 닦는다 함은 우리 마음에 고요함[止]과 또렷또렷함[觀]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호흡에 집중하든지 화두에 집중하든지 어떤 참선 명상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하면 중도 삼매가 되어 우리 본성을 밝히게 된다.

이렇게 중도 정견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는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항시 밝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 정견이고 지혜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五臟의 根源인 肝을 지킵시다
(오장) (근원) (간)

肝(간)을 지키는 다슬기 기름
간 건강에는 다슬기 기름









TV조선 코리아헌트 방영

더욱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NAVER 우미산 다슬기기름으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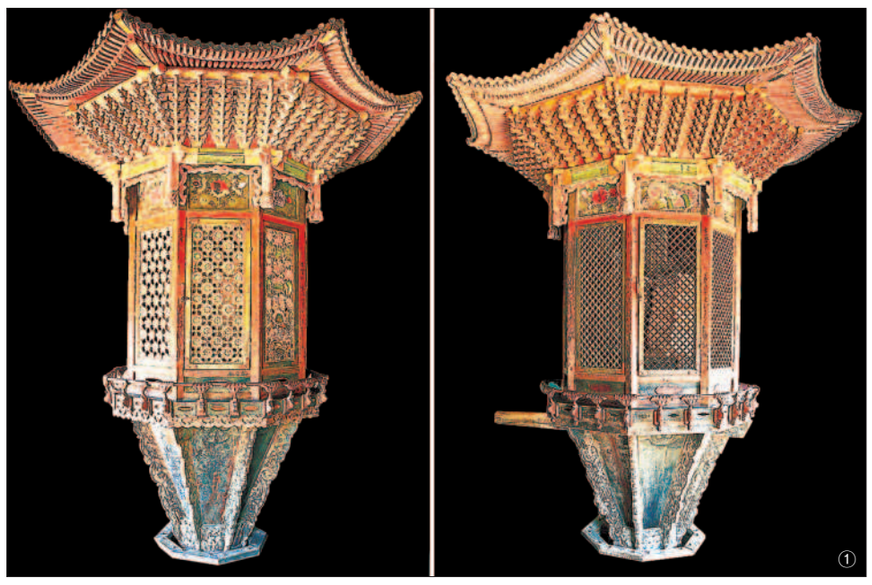
T. 010-3529-0077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⑰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 한줄 요약
전륜장 제작 배경에는 경전을 보관한 책장을 한 번 돌리는 것은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덕과 같다고 여기는 전경신앙(轉經信仰)이 바탕에 있다.

국내 유일 회전식 경전 보관책장







①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② 용문사 대장전 향좌측 윤장대 8면의 통판투조꽃살문
③ 윤장대 내부 모습

윤장대 돌리면 경전 독송 공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法)'이라 한다. 범어로는 '다르마'라 하고, 빨리어로는 '담마'라 부른다. 부처님의 설법을 일러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고 표현한다. '전법륜(轉法輪)'의 한자어가 그 의미다. 법은 '삼장(三藏)'에 갈무리하고 있다. 삼장은 '트리피타카(tripitaka)'로서 '세 개의 광주리'다. 세 개의 광주리는 경장과 율장, 논장이다. 세 광주리에 담은 경, 율, 논 일체를 '대장경', 또는 '일체경'이라 칭한다. 대장경은 〈화엄경〉, 〈아함경〉, 〈반야경〉 등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은 물론이고, 승가공동체가 지켜야 할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경과 율을 해석한 논장 등 불교 성전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규모가 8만 4천의 법문에 이르기에 통상 팔만대장경으로 부른다. 대장경은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달한 야자 잎에 사경한 '패엽경' 같은 필사본도 있고, 대량유통을 위하여 경전을 목판에 새기고 인경하여 펴낸 대장경도 있다. 목판에 새긴 경판은 장경판전에 보관한다. 대표적인 경판과 판전이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이고, 세계유산인 장경판전이다. 나무 판에 새긴 경판은 바람이 잘 통하는 장경판전에 시렁을 마련해서 칸칸이 보존하는 모습을 익히 살필 수 있다. 그런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책으로 펴낸 대장경은 어떤 시설에, 어떻게 보관하였을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대장전과 같은 건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산사 불전 중에서 '대장전'의 편액을 달고 있는 곳은 몇몇에 지나지 않는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 김제 금산사 대장전이 대표적이다. 통상 서적류는 두 가지 형식으로 책을 보관한다. 하나는 선반을 갖춘 서가의 책장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륜장(轉輪藏) 형식이다. 서가의 책장형식은 붙박이 고정형이고, 전륜장 형식은 회전형이다. 전륜장 형식은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효율의 측면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체험하는 경전신앙에 있다. 전륜장 제작 배경에는 경전을 보관한 책장을 한 번 돌리는 것은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덕과 같다고 여기는 전경신앙(轉經信仰)이 바탕에 있다. 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장엄의 공덕이 더욱 특별하다. 이런 전경신앙은 티베트에서 경전 내용을 담은 종 모양의 회전식 통 '마니차'를 돌리는 신앙행위와 상통한다.

한중일 전륜장 모두 팔각형 회전책장

전륜장과 같은 형식은 중국, 한국, 일본의 동아시아에 두루 현존한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10여 기씩 다수 현존한다. 중국 북송대의 융흥사 전륜장(969년), 일본의 안코쿠지(안국사) 경장(1408년) 등이 대표적이다. 두 나라 모두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 일본의 전륜장은 놀이공간의 회전목마를 연상케 하는 팔각형 몸체에 10m 넘는 대형 회전책장이고, 중층 건물에 시설했다.

반면에 한국에선 유일하게 한 점만 현전한다. 그 전륜장이 예천 용문사 윤장대(輪藏臺)다. '윤장대'는 말 그대로 '회전식 경전 보존시설'이라는 의미다. 중국에선 '전륜대장(轉輪大藏)', 또는 '전륜경장(轉輪經藏)'이라 부른다. 중국 북송대 1103년에 간행된 〈영조법식(營造法式)〉 34권 중 권11에는 전륜장의 전형을 그림으로 그려 보이면서 '전륜경장'이라 명명했다. 한중일 세 나라 전륜장의 공통점은 그 평면 형태가 팔각형인 점과 돌릴 수 있는 회전 책장이라는 점에 있다. 바닥에서 천정면까지 관통하는 심주를 회전축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다.

문헌 기록, 또는 절터 유구로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 외에도 네다섯 곳에 더 전륜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헌기록상 춘천 청평사와 금강산 장안사에도 윤장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안사 윤장대는 15세기 학자 남효온의 기행문 〈유금강산기〉에 보인다. 철구(鐵臼)와 철주(鐵柱), 3층의 몸통으로 구성됐다고 묘사하면서 '대장경함(大藏經函)'이라 불렀다. 청평사의 경우 17세기 문인 장유(1587~1638)의 청평사를 묘사한 시의 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암자 앞에 전경대(轉經臺)만 외로이 남았구나"라는 대목이다. '전경대'는 윤장대의 별칭이다. 더욱이 청평사 회전문 마당엔 '장경비(藏經碑)'의 유구도 있다. '회전문'이라는 독특한 중문 이름도 윤장대와 긴밀하다. '회전문(廻轉門)'의 의미는 불교 경전을 봉안한 윤장대 회전 시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예천 용문사 역시 천왕문 자리에 '회전문'이 있다. '회전문-윤장대'는 서로 긴밀한 불가분의 짝으로 이해된다. 사찰의 건물지에서 윤장대 유구가 확인되는 곳은 영동 영국사와 파주 혜음원지 등이다. 이들 건물지 중심부에는 홈, 또는 십자 홈이 파인 초석이 있고, 그 초석 주변에 원형의 쇠 녹물 흔적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현존하는 실물로는 용문사 윤장대가 유일하다. 더욱이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중층 건물에 한 기만 봉안한 형식이 아니라 단층 건물 대장전 내부에 한 쌍을 배치한 형식이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쌍륜장 형식이다. 용문사 대장전은 불교조형 미술사에서 갖는 희소성에 의해 지난 2019년 대장전과 함께 일체형 형식으로 국보로 승격 지정됐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쌍륜장 형식
고려대장경 국난극복 의지와 상통
창평사, 영동사 등에도 윤장대 유구
윤장대 내부에 팔각 서가시설 장치

대장전과 윤장대 창건부터 일체형

왜 일체형인가? 대장전과 윤장대는 불가분의 일체형인가? 용문사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건물이다. 12세기 창건부터 윤장대를 봉안할 목적으로 지은 전각이다. 회전문 아래 비석군에 〈중수용문사기(重修龍門寺記)〉(1185년)의 비가 있다. 비명에 의하면 계사년(1173년)에 국난극복을 위하여 조응 스님과 자엄 대사가 발원하여 3만승재를 열고, '당삼간' 건물을 지어 그 안에 윤장대 2기를 별도로 안치하였고(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間作), 또 학자 300여 명을 모아 7일 법회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고려 12세기 말 창건부터 대장전과 윤장대는 유기적 일체형으로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다섯 차례의 중수가 잇따랐다. 다섯 차례 중수 사실은 1767년 기록인 〈예천 용문산 창기사 대장전 중수상량문(醴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에 전한다. 중수상량문의 '창기사'는 용문사의 별칭이다. 상량문에 의하면 계사년 1173년에 창건한 후 1467년, 1534년, 1597년, 1665년에 이어 1767년까지 다섯 차례의 중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중수상량문에는 또한 용문사에 대장전과 윤장대를 설치한 인연설화도 밝히고 있어 성보에 서사의 경이로움을 더한다. "일찍이 인도 고승 구담이 용궁에 팔만대장경전을 안치하였는데 그와 같이 용이 나타난 용문사에 대장전을 지어 그 내부에 전법륜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한 쌍의 윤장대를 만들어 안치했다"는 것이다. 국난극복을 위하여 경전을 새겨 펴내서 인연이 닿는 곳에 보장하는 성역은 고려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 주목된다. 초조대장경, 속장경, 팔만대장경, 그리고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건립 등에서 일관된 대응 방식과 염원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보장을 통하여 나라를 수호하고 국난을 극복하려는 불교국가 고려의 한결같은 의지다. 용문사 윤장대는 일련의 고려대장경의 특별한 한 흐름에 있으며, 대장경 봉안에 있어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한 형태라 할 것이다.

윤장대는 대장전 목조아미타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팔각형 목조건축 형태다. 법주사 5층 목탑처럼 중심부엔 원형의 목조 심주가 바닥 아래 초석에서 천정까지 관통한다. 그 심주가 윤장대의 회전축이다. 윤장대는 높이 4.2m, 둘레 3.15m의 규모다. 회전축 심주의 지름은 28cm에 이른다. 제작에 사용한 목재는 대부분 소나무이지만, 심주는 두 기 모두 느티나무를 사용했다.

연꽃 위에 전륜장을 극적으로 봉안

윤장대는 하단부와 몸체, 지붕의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팔각지붕은 법당의 닫집 기법 그대로 제작했다. 지붕을 받치고 있는 공포가 치밀하다. 층층이, 겹겹이 짜 올린 출목이 여섯 층에 이른다. 훌쩍 솟아올라 상큼하고 쾌적하다. 하단은 그 생김이 독특하다. 팽이 모양의 원뿔형이다. 형태에서 회전체의 물리적 속성을 읽을 수 있다. 원뿔 회전체의 구동성은 몸체 난간 아래 돌출하게 시설한 나무 손잡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아, 돌릴 수 있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게 된다. 손잡이에 전경신앙 공덕의 손때가 윤이 나도록 묻어있다. 하단의 팔면 모서리엔 새싹의 촉을 가지고 무한히 서로 연결돼있는 넝쿨을 새겼다. 면마다 벽사의 뜻으로 용의 얼굴을 그려 사악한 기운을 막게 했다. 하단 조형에서 맨 아래 조각한 연꽃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연꽃은 연화좌의 의미다. 연꽃 위에 부처님을 봉안한 것과 같고, 사경 표지에서 연꽃 위에 경전명의 명패를 올려둔 장면과 같다. 연꽃 위에 전륜장을 극적으로 봉안했다.

두 기의 윤장대는 안정적인 좌우대칭이지만 몸체의 표현은 비대칭이다. 팔각기둥 몸체는 면마다 투각한 창호를 시설했다. 투각 창호는 통풍을 고려한 장치다. 향우측 윤장대 창호는 빗살문으로, 향좌측의 창호는 꽃살문으로 짰다. 하나는 단순하고, 하나는 기교를 다했다. 불국사 대웅전 마당의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형원리와 상통한다. 대칭의 깨짐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조화의 활력이 생긴다. 8면의 꽃살문양은 같은 것이 없다. 솟을꽃살 형식도 있고, 통판투조도 있다. 세세생생 마르지 않는 꽃을 새겼다. 창호를 열면 중심에 원형 심주를 둘러싼 사천주 기둥이 있다. 사천주 아래에 팔각 서가를 설치해서 경전을 포개 얹어 뒀다.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책장이다. 윤장대는 국내 유일의 전륜장 형식의 해장보각이다. 그 속에 지혜의 바다가 있다. 아무리 퍼가도 마르지 않는 지혜와 자비의 바다가 있다. 〈사진작가〉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불교인문학살롱

⑰ 나의 부탄 여행기–연기법에 대해

▶**이명진 작가**는 강원도 춘천 출생.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석사를 받았다. 1997년 〈해동문학〉 여름호에 '잃어버린 고향'으로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2011년 〈수필과 비평〉에서 '법정수필연구'로 평론가로 등단했다. 풀꽃수필 문학상, 일신수필 문학상, 신곡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혜양문학〉, 〈수필미학〉, 〈계간문예〉 이사로 활동 중이다.



부탄서 환생을 생각하다

'은둔의 왕국' 부탄에 도착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파로 공항은 바람을 가둬 두기라도 할 듯 고요하게 손님을 맞이했다. '바람(風)'은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望)'을 간직한 채, 골목과 거리와 허공을 쓸고 다녔다. 부탄이란 나라는 '신들의 정원' 혹은 '벼락 치는 용의 나라'라고도 한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한가운데 파묻혀 수 세기 동안 세상과 동떨어져 지내며 대승불교의 전통을 지켜 왔다. 국기에 그려진 용 한 마리가 여행객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원피스로 된 전통 복장인 '고'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가이드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은 채 반겨준다. 그는 맑고 선한 눈을 커다랗게 뜨며 수줍은 듯 자기소개를 했다. 부탄에서의 첫 인연이다. 악수로 맞잡은 그의 손이 유난히 따뜻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소용돌이를 만든다. 손을 잡고 흔드는 순간, 저릿한 기운이 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저었다. 아찔한 전율이 부챗살처럼 퍼지는 햇살을 가로막는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으며 젊은 청년을 바라봤다. 해맑은 표정으로 눈 맞춤을 하고 있다. 그가 서 있는 사이로 잔잔한 바람이 길을 만들며 옷자락 마디를 여미게 한다.

"저는 한국에 있는 경희대에서 유학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현악기 울림처럼 부드럽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말을 할 때마다 얼굴 가득 피어나던 미소는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 까무잡잡한 피부조차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하고 다정한 이미지다. 어디서 봤을까.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다리를 모으고 버스에 앉아 있는 그의 그림자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검정 스타킹을 신은 다리가 부동의 자세로 인해 가늘게 보였다. 여자들 치마 같은 전통 의상은 다리를 벌리고 앉는 남자들의 무례한 몸동작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더욱 겸손해 보이는 옷매무새다. 자꾸 그에게 시선이 갔다. 나를 피하지 않으며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으로 화답해 준다. 덩달아 따라 웃었다. '언제 만난 듯 익숙한 얼굴인데'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다. 하지만, 그를 만났을 리 만무하다.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왔지만 내가 사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활동하던 영역도 전혀 달랐다. 하물며 나이도 다르지 않던가. 그의 웃음이 또 나를 향하고 있다. 현재의 삶에서 그를 만난 일이 없다면 전생에 인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어 놓는다. 그와 내가 전생에 부모 자식이었거나, 부부의 정으로 혹은 연인 사이로 만났을지 모를 일이다.

왜 각별한 사이였던 인연으로 의식되는지 알 수 없다. 부탄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이 나를 과거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듯 싶다. 아니면 부처님께서 그와 나를 맺어 주고 싶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걸까. 훅, 밀려오는 예상치 못한 힘은 내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분주했다. 그때였다.



부탄의 불교사원인 푸나카 종.

"꼭 어머니처럼 따뜻한 기운이 전해져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입꼬리도 올린 채 말을 건네 왔다.

'화엄'에서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을 통해 연기법의 연멸(緣滅)을 가르치고, 반야, 중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절대부정을 통해 연기법을 가르친다. 화엄의 법계연기는 사사무애(事事無碍) 연기라고 했다. 사사무애 연기는 '일즉일체(一卽一切), 일체즉일(一切卽一)'로 하나가 곧 무한이요, 무한이 곧 하나다. 그러기에 내가 항상 존재하는 곳에서 관계 맺은 인연은 저기 아니면 여기 사이에서 생사를 떠나 조화를 이룬다하지 않던가.

어느덧, 그와 함께 향하고 있는 곳은 '푸나카'였다. 그곳에는 부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푸나카 종'이 남녀 화합의 의미를 간직한 채 자리하고 있다. 아버지의 강인 포추와 어머니의 강인 모추가 합쳐지는 길목이다. 그곳에 한 폭의 수묵화처럼 지나던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원이 '푸나카 종'이다. '종'이라 불리던 사원은 정치를 관장하는 관공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승려들이 기거하며 국책을 의논하고 결정했던 성과 같은 건물이다. 줄지어 서 있는 나무숲과 소박한 기원을 담은 기도문이 룽다와 타르쵸의 깃발 사이로 펄럭펄럭 바람 소리를 들려준다.

바람이 실어 나르는 경전의 소리를 듣고 싶어 두리번거릴 즈음 광장 안쪽에 자리한 거대한 보리수가 손짓한다.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라' 쵸르텐을 앞에 두고 보리수는 탑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달린 또 하나의 눈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설파한 보리수는 편안하고 안온하게 그늘을 만들며, 얻을 것은 무엇이고 잃을 것은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 온다.

> **환생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 **기계적으로 습득한 지식 버리고**
> **순진무구함으로 회귀 의미할지도**
> **부탄의 그가 신라 김대성이었다면**
> **현재 나의 전생은 경조였을까**

내 인생의 행선지는 어디인가. 극락이란 괴로움이나 불행 없이 항상 즐거움과 행복만 가득한 세계라 했다. 그래서 누구나 극락을 찾고 원하는 걸까. 현재라고 하는 지금은 시간이며, 시간이란 변화일 터이다. 과거는 변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래란 아직 변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기에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 문득, 푸나카 종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던 나무다리를 건널 때, 그가 불러 주던 노랫가락이 애절하게 가슴을 휘감는다.

푸나카라는 지역은 남자 강과 여자 강이 만나는 장소이다. 남자 강에 터전을 일군 물고기는 잘생겼고, 여자 강에 살던 물고기는 예뻤다. 잘생기고 예쁜 둘이 만나 사랑을 하자 누군가 방해를 한다. 헤어졌다 다시 만난 둘은 인연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연을 간직한 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게 된다. 아마 푸나카 종에서 들려오는 불경 소리를 듣고 그들도 참회와 참선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끊어질 듯 이어지던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음을 후벼 팠다. 노래를 끝낸 그가 내게 질문을 했다.

"환생을 믿으세요?" 꼬불꼬불 좁고 비탈진 비포장 길을 곡예하듯 달리는 미니버스 속에서였다. 25살 앳된 청년이 환생을 물었다. 부탄은 대승불교 사상을 모태 신앙으로 따르고 섬기는 국가였다. 국민의 90%가 불교를 종교로 삼고 있다. 그래서일까.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출가를 준비했다고 한다. 출가가 그리 쉬운 결심은 아닐 터이다. 한창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가 승려를 꿈꿨다니 놀라웠다. 행복지수가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승려를 꿈꾸는 청년은 외국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했다. 고등학교 시절 우수 학생으로 뽑혀 외국 유학까지 무상 혜택을 받은 그였다.

"저는 환생을 믿어요." 움직이는 버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전생을 이야기했다. 조선시대에 한국인으로 태어나 살다 부탄에서 환생한 탓에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다. 그는 조선시대 학자 아니면 승려이었을까. 묻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나와 인연도 전생 업에 의해 이뤄진 관계라면, 그의 환생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육신보다 영혼을 중시한다는 대승사상이다. 그러기에 육체보다 정신을 우선하고 불법을 깨닫는 일이 곧 윤회를 끊는 일이라 생각한다. 환생불도 그들에게는 모든 일에 영험함을 보이며 정신적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 높은 산악지대에 터전을 일구고 살아오는 동안 울창한 숲은 맑은 공기와 풍부한 수량을 만들어 주었다. 덕분에 바람은 부처님 말씀을 모두에게 실어 나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고 중생들의 바른 생을 인도하던 린포체가 죽음 후에 다시 어린아이로 환생한다. 린포체는 예전의 능력을 되살려 중생구도에 매진한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환생불의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에 대한 원력을 믿고 신성시할수록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면 바람이 전해주는 경전 소리를 굳이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대는 전생에 어느 절에서 살았지?"

"경주에 있는 불국사예요."

또다시 바람이 휘릭휘릭 소리를 낸다. 얼굴을 스치고, 코끝을 간질이며, 귓불을 쓰다듬는다. 향기가 물씬 풍겨 온다. 모락모락 향불이 타오르며 소리 없는 울림이 너울춤을 춘다.

그는 꿈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았으니 욕심도 버리고 마음까지 내려놓는다 했다. 하심(下心)을 깨닫고 탑돌이를 하며, 오체투지로 고행을 깨달았다니 그도 부처일까. 구호단체 일을 하고 싶다는 그의 몸이 바람 소리를 들었는지 가늘게 흔들렸다.

"한국에 가면 적멸보궁 다섯 군데와 불국사에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뜻 안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전생이 '김대성'이었다며 엷은 미소를 흘렸다. 환생을 믿는다는 부탄 청년이 불국사와 김대성을 이야기한다. 김대성은 신라시대 재상이 아니던가. 김대성은 경덕왕의 명에 따라 불국사를 다시 짓고 석불사(훗날 석굴암으로 이름이 바뀜)를 새로 지었다(774년 완공)고 전해 오는 인물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대성은 전생에 경주 모량리의 가난한 여자 경조의 아들로 태어나 품팔이를 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이익을 얻으리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품팔이로 마련했던 밭을 시주한 뒤 죽었다. 그날 밤 재상 김문량의 집에 다시 태어난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 경조도 모셔 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부자보다 가난한 이의 시주가 더 큰 인과응보의 결과를 얻어냈으니 불교로 귀의한 김대성은 사찰 불사에 큰 힘을 보탤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았겠는가.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기계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버리고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은 순진무구함으로 돌아가는 길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부탄에서 가이드를 하는 그가 신라시대의 김대성이었다면 현재 나의 전생은 경조였을까.

부처님의 말씀이 연기로 남아 룽다에서 타르쵸로 초르텐으로 전해지는 찰나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중생 고뇌 해결사, 관세음보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㉝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원문〉 "세존이시여, 저는 또 듣고 닦아 훈습하는 금강삼매의 지음이 없는 미묘한 힘으로 시방 삼세의 육도 중생들과 자비로 우러름이 동일한 까닭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저의 몸과 마음에서 14가지의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얻게 하나이다.

첫째는 제가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것을 관함으로써 시방의 고뇌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나이다.

둘째는 알고 보는 것(知見)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설사 큰불에 들어간다 하여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나이다.

셋째는 관찰해 듣는 것(觀聽)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큰 물에 표류하여도 물이 능히 빠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이다.

넷째는 망상을 끊어 소멸시켜 마음에 죽이고 해치는 것이 없어졌으므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귀신이 능히 해치지 못하게 하나이다."

〈강설〉 〈능엄경〉 6권 뒷부분에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이 설명되고 이어 관세음보살이 육도 중생을 위해 32응신(應身)을 나타내며 14무외(無畏)를 실천하는 내용이 설해진다. 이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불보살의 위신력을 신앙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내려왔다. 이것이 소승불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다.

원래 관세음보살 위신력에 대해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품을 〈관음경〉이라 하여 별도로 유통시켜 오기도 하였다. 〈능엄경〉에서도 32응신과 14무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중 14무외의 처음 내용을 살펴본다. 관세음보살이 위신력(威神力)을 가지고 중생들의 험난한 일들을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근원통의 공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이 처음 '입류망소(入流亡所)'를 얻었다 했을 때 말한 것처럼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성품을 들어 무엇이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있는지 관하는 자기 자신을 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능히 보는 본성품을 관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발휘되는 위신력으로 시방의 괴로워하는 중생을 그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나가면서 밖으로 보고 아는 것을 안으로 돌려 자성인 본성의 자리를 회복했으므로 거기서 신통력이 발휘되어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게도 한다는 것이다. 중생이 초인적인 힘을 얻어 이른바 삼재(三災)를 면할 수 있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불에 의한 재앙과 물에 의한 재앙, 그리고 바람에 의한 재앙을 삼재(三災)라고 한다. 중생의 기복 심리를 영복축액(迎福逐厄), 혹은 원화소복(遠禍召福)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누구나 도움을 바라며, 또 기적을 바라거나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내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 신앙은 기도로써 신앙행위가 표현되는 것이다. 밀교에서는 기도행위에 5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식재(息災), 경애(敬愛), 증익(增益), 조복(調伏), 구소(鉤召), 다섯 가지다. 식재는 재앙이 소멸된다는 말이고, 경애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말이다. 증익은 이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며, 조복은 마군을 항복시킨다는 말이다. 구소는 갈고리에 걸어 당겨 올린다는 뜻이다.

모두 공리적인 타산을 맞추는 말이기는 하지만 복을 원하는 마음인 복분심(福分心)에 있어서는 현실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물론 도를 깨닫고자 하는 도분심(道分心)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들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추구하여 본분의 수행을 완성하고자 하는 면을 더욱 중시한다. 어떻든 복분심이나 도분심에 다 같이 신심이 갖춰져야 하고 불보살의 호념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선정바라밀 닦으려면 과지법행 갖춰야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㉝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을 닦으려면 과지법행이 갖추어져야 한다. 생멸수행의 과지법행을 갖추고 진여수행의 과지법행이 갖추어져야 선정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 선정바라밀이 행해지려면 먼저 정(定)의 주체를 세워야한다.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의 주체가 쓰인다. 생멸수행에서 활용되는 정의 주체는 아홉 가지 마음 상태와 열두 개의 기점이 쓰인다. 표면적 유위각, 미세적 무위각, 일시적 무위각, 본연적 무위각, 무념, 무심, 본성, 밝은성품, 적멸처가 아홉 가지 마음 상태이다. 중심, 중극, 영대, 미심, 중황, 옥침, 백회, 하단전, 황정, 명문, 회음, 황중이 몸 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기점이다. 진여수행에서 활용되는 정(定)의 주체는 여덟 가지 마음상태와 열두 개의 기점이 쓰인다. 구경각과 무념, 무심, 적멸처, 밝은성품, 해탈지견, 암마라식, 원통식이 여덟 가지 마음 상태이다.

생멸수행의 선정바라밀은 선정의 단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定)의 주체가 활용된다. 무심은 중심(가슴바탕)자리에서 세워지는 편안함이다. 무념은 중황(머릿골 속)자리에서 갖추어지는 텅 비워진 자리와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다. 〈원각경〉에서는 무심처를 적멸처(寂滅處)라 하고 무념처를 적정처(寂靜處)라 한다. 적멸처를 갖추기 위해서 선나를 행한다. 적정처를 갖추기 위해서 사마타를 행한다. 선나와 사마타로 정(定)의 주체를 세운다. 선나가 중관(中觀)이고 사마타가 공관(空觀)이다. 초선정에서는 중심에서 세워지는 무심(無心)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편안함으로 선나를 행하고 아무렇지 않음으로 사마타를 행한다. 표면적 유위각이 쓰인다. 2선정에서는 중심에서 세워지는 무심과 중황에서 세워지는 무념(無念)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중심에서 편안함과 아무렇지 않음이 한자리를 이루고 중황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과 텅 비워짐이 한 자리를 이룬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인다.

3선정에서는 중심에서 세워지는 철벽과 중극에서 세워지는 무념처가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중극에서는 무념주와 아무렇지 않음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무념처를 이룬다. 미세적 유위각이 쓰인다.

4선정의 초입에서는 중심의 텅 비워짐과 중극의 무념처가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중심의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빈자리로 드러나고 중극에서는 무념주와 아무렇지 않음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이다. 본성을 인식한 후에는 하단전에서 형성된 한 물건과 본성으로 정의 주체를 삼는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5선정에서는 황정에 형성된 한 물건과 본성으로 정의 주체를 삼는다. 채약으로 욕정을 제도하고 공무변처정으로 감정을 제도한다. 본성을 주체로 해서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가 함께 행해진다. 일시적 무위각이 쓰인다. 6선정에서는 중황에 형성된 한 물건과 본성으로 정의 주체를 삼는다. 환정보뇌와 식무변처정이 행해지고 43단계의 척수막관이 행해진다. 본성을 주체로 해서 금강해탈도와 허공해탈도가 함께 행해진다. 일시적 무위각이 활용된다.

7선정에서는 무념, 무심, 간극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각성이 간극에 들어앉아서 본성과 합일을 이룬다. 일시적 무위각이 본연적 무위각으로 전환된다. 7선정을 무소유처정이라 한다.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초입반야, 중간반야가 그것이다. 초입반야가 수다원과이다. 중간반야가 사다함과이다. 초입반야에서는 본각이 정(定)의 주체이다. 중간반야에서는 본각과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이다. 이 과정에서 의식 · 감정 · 의지가 진여심과 분리된다.

7선정부터는 무념, 무심, 간극, 밝은성품을 활용한 25가지 원통수행이 이루어진다. 이 수행이 8선정과 9선정까지 이어진다.

종반야에 들어가면 9선정이 된다. 종반야에서는 간극(寂滅處)이 정의 주체가 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㉝ 삼세제불

진리의 등대는 꺼지지 않는다

'무엇이 부처입니까?'라는 질문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행자들의 뇌리에 맴도는 화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구하는 이는 많지 않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질문에 왜 허둥대며 움직이느냐이다. 허둥대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자신이 무엇인지에 거의 가까이 닿게 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아마 대부분은 놓치는 부분일 것이다. 몸과 마음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하는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기 어렵다. 만약 되돌아본다면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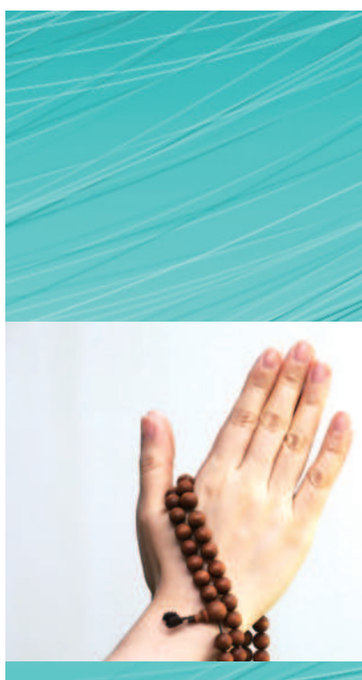
수행은 목적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르게 하다 보면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이 되돌아봄이 아주 짧아져 찰나에 간파된다면 왜 되돌아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지 의문이 풀린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은 일부분의 이름이지 전체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일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이라는 이름의 일부와 부처라는 이름의 일부를 알고 있으니 다르게 보였던 것이지 이름이 없는 전체를 알고 보니 이 두 가지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보고 들은 언어와 소리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그러니 마음에 알고 있다는 분별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 알고 있다는 마음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모든 것에 분명한 앎이 생겨난다. 간택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봄은 일체를 그대로 본다. 그대로 본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이라 하게 되면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등대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 헤매게 된다. 그 등대의 이름을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다. 등대를 의지해 배가 정박하고 나면 그곳에 정박한 모든 배들은 똑같다. 배가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이름과 모양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이고 이름 붙여진 것은 그것의 이름이 아니다.

"범부들은 생명이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하기에 외도들이 삿된 견해로 그들의 망상을 증가시켰네. 그래서 생사의 떠돌아다님이 끝없이 돌고 돈다고 했네. 지금은 그들로 하여금 생사를 벗어나 해탈을 얻고 노력하고 정진해서 진제를 증득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제불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어 결코 우담바라처럼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한 것이네."

이름과 모양이 그 본질을 덮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름과 모양에만 정신이 쏠려있다. 이름과 모양이 수승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남의 부러움은 살 수 있어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하는 사명은 해결하지 못한다. 이름과 모양의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만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특별하ㅁ고 사실적으로 일어나 달라지고 나타나는 것은 없다. 아주 평범하고, 수행을 하기 전과 다르지 않고,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없으며, 남에게 신묘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알기에, 살아온 시간도 없고 살아야 할 시간도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오직 길을 잃은 배들이 불빛을 보고 찾아드는 등대로서 살아간다. 등대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다. 찾아든 배들을 등대에 정박시키지는 않는다. 정박시킬 수 있는 선착장이 없다. 그들도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면 하나의 등대가 된다. 어두운 밤의 가운데서 깜빡깜빡 불을 밝힐 것이다. 그 불빛은 또 다른 인연의 등대가 된다. 산꼭대기에 있는 봉화대가 불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진리의 불빛도 곳곳에서 나타나 어둠을 밝힌다. 따로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양과 소리에 물들지 않은 모든 이들이 등대인 것이다. 그러니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도 삼세의 부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부대·교도소 등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세요
최고의 언론 포교 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法보시 신청
02-2004-8212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50호 | 17 | 전면광고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 • 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가격협의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 주차가능 • 매가 : 3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받을 수 있읍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010-5436-58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4547-00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사용
- 보증금 1천, 월세 43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7942-901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동 진 불 사

- 위 치 : 경남 창원시 소재
- 부 지 : 약 50 평
- 법 당 : 30평 (단청 2층)
- 요사채 : 30평 (종무소 1층)
- 특 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입니다.
- 위 치 : 경주시 • 부지 : 약 800평 (종교용지)
- 법 당 : 40평 (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채 : 50평 (목조, 황토)
- 산신각 : 7평 (닷집, 단청)
- 기 타 : 연못, 석탑, 석등
- 가 액 : 9억원 (조정가능)
- 특 징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로 좋습니다.

전국 소재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좋은 인연 ----------

서울 010-5122-8080 대구 010-4927-0455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몸만 오세요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809
- 대지 411평
- 건물 1, 2층 (68평 정도)
- 금액 : 5억 9천 9백
- 암자, 토굴, 전원주택, 펜션, 사찰가능
- 바다조망

010-3000-5359

포교원안내

- 경기 이천시 장호원
- 전통시장 단독주택 포교원 매매
- 대지 30평중 12평 시유지사용 합 42평
- 건평 42평 벽돌조, 함석강판지붕, 큰거실, 법당방1, 큰방1, 객방소2, 큰주방
- 주차 : 눈비 안맞음 50대 (뒤에 무료주차 100대 이상)
- 무속인도 가능
- 가격 : 1억5천만원

010-9484-7622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사찰 안에 계곡 축대 재공사 완료
- 차로 확장공사 완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절충 가능)

010-5421-1536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 대지 : 1,299㎡(393)
- 건물 : 법당– 약 15평, 요사채– 약 35평, 창고–약 4평
- 스님 세수가 많아 회양준비중임
- 시내 아주 좋음(주차장, 도로사정좋음)
- 꼭 하실분, 부동산 사절
- 금액 : 3억 7천만원

010-9800-7575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시 상대원동
- 법당 1층 3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5만원, 시설비 1천 2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상 임대합니다

010-5369-415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 : 교통이 좋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북구 만덕동 438번지
- 대지 41평, 100년된 고요한 암자 (도심 근천)
- 하천부지 60평 활용 (1년 사용료 430만원정도)
- 매각금액 : 2억 5천만원

010-8411-1217

사 찰 안 내

- 청주사찰건물
- 청주시청앞 건물 9층 건물대지 147평, 건평, 1100평
- 1층: 로비사무실, 2층: 연잎한정식, 3층: 생광석찜질방, 4층: 식당, 5층: 임대, 6층: 임대, 7층: 사찰대웅전, 8층: 임대, 9층: 아파트 70평
- 매매가 25억 대출 15억임대
- 스님들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싸게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윗길 28–17
- 부지 : 500평 (대지 250평)
- 법당 (16평), 종무소 (6평), 창고 (4평), 종무소 2 (18평 콘크리트건물 신축), 요사체 +휴게실+ 창고 (30평), 산신각
- 가액 : 3억 8천 만원, 협의가능 (북원주 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2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50호 | 18 | 전면광고

흰 천에 묻은 얼룩은 눈에 띄지만
악인은 검은 옷에 먹물을 칠한 것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 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원주 비구니스님

- 40년 대웅전을 갔고 스님 생활을 하던 비구니스님입니다.
- 갑자기 산신기도를 하는데 말문이 터져 신명님을 모시고 신점을 봅니다.
- 가정이 잘 안풀리거나, 퇴마, 빙의, 몸이 신병으로 아프신분, 사주보실 분 연락주세요.

010-9392-1189

공양주 구함

살림살 비구니스님 구함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14-15
- 극락사
- 주지 벽송

010-9178-6397



점 연구원

- 미래 현재 과거 점 보는 법
-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는 없고, 좋은 팔자는 만들 수 있다 !
- 사주팔자 풀이 잘 안되는 분, 쉽게 풀이하는 법 전수
- 예) 명리 육임 육효
- 하늘, 땅, 나, 삼합 보는 법
- 준비물 없음
- 토화사 삼봉법사

010-3750-855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공양주 구함

스님들과 같이 함께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4069-9131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010-2078-959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암, 간질, 공황장애, 음주, 우울증치료, 조현병, 정신질환 치유가 90% 이상 가능합니다.

- 친견비 330만원
- 천도비 1억부터 시작
- 모든 사고사 예방됩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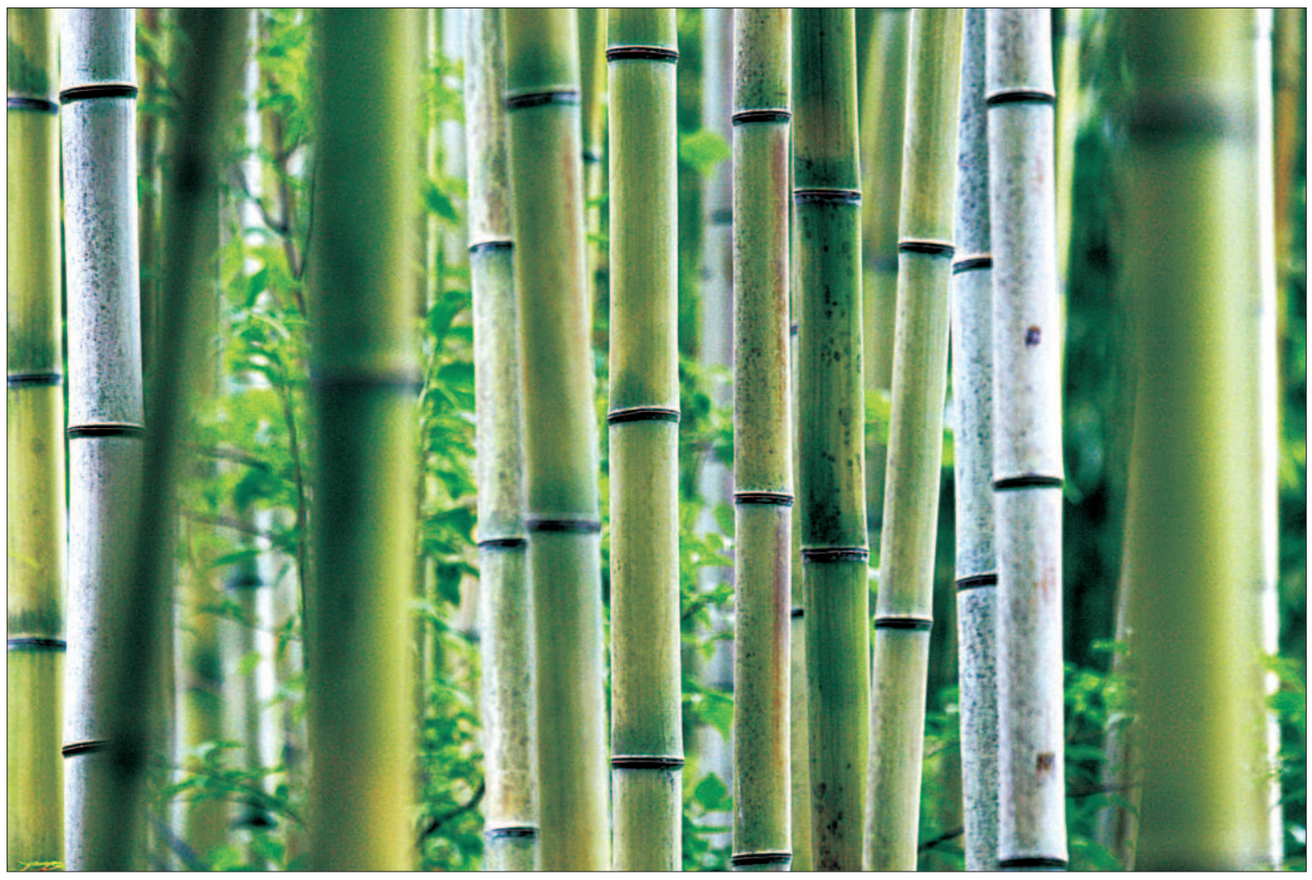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매미

보이지 않는 매미들은
단 며칠 동안의 울음으로
멋진 안거를 끝내고
사연처럼
사라졌다.

매미가 떠난 숲엔
나, 나, 나…
우리는 또 매미들을 보냈다.
매미가 떠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뜨거웠던 여름이 간다.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⑮ 엉겅퀴꽃차

혈액순환 돕는 엉겅퀴…성인병에 효과

엉겅퀴는 피를 엉키게 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5세기 말에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에서는 가시가 달려 있어서 '한거식'로 불리었다. '한거식'란 큰 가시를 뜻한다. 쌍덕잎식물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전역의 산과 들에서 자란다. 꽃은 6~8월에 자주색 또는 적색꽃이 핀다.

꽃말은 '독립' '고독한 사람' '근엄' '건드리지마' '순진함'이며, 다른 이름은 가시엉겅퀴, 가시나물, 항가새 등이고, 생약명은 대계(大薊)이다. 산지는 한국, 일본, 중국 북동부 지역이다.

이용부위는 뿌리와 잎이며, 어린잎은 식용하고, 뿌리와 잎은 약용한다.

성분과 약성

엉겅퀴 전초는 알칼로이드(alkaloid), 정유(精油) 등이 있고, 뿌리에는 타락사스테릴(taraxaxteryl), 아세테이트(acetate), 스티그마스테롤(stigmasterol), 알파아미린(α -amyrin), 베타시토스테롤(β -sitosterol) 등이 있다.

엉겅퀴는 성질이 차고, 맛이 쓰고 달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이나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코피, 자궁출혈, 외상출혈 등을 지혈하는 효능이 있다. 어혈을 풀어주고 종기를 가라앉힌다.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간의 재생능력을 증진시켜준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특히 무릎 통증과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염 등을 완화해주고 예방해준다. 담(膽)을 이롭게 하고, 급·만성 간염이나 신염(腎炎)을 다스린다.

마음, 기 작용

엉겅퀴꽃차는 간(肝)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맛이 쓰고 단 엉겅퀴는 간(肝)의 기운을 도와서 급한 성질의 태음인을 너그럽고 온화하게 한다.

엉겅퀴는 간의 독을 해독하고 간세포를 보호하여 간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데, 이는 수곡량기의 간(肝)과 관계된다. 수곡량기는 소장(小腸)에서 유(油)가 생성되어 배꼽의 유해(油海)로 들어가고, 유해의 맑은 기운은 코로 나아가서 혈(血)이 되고, 코의 혈이 허리로 들어가 혈해(血海)가 되고, 간은 혈해의 맑은 즙을 빨아들여서 원기를 보익하고, 기운을 고동하여 배꼽의 유해를 모이게 한다. 혈해의 맑은 즙이 간의 원기를 보익하기 때문에 엉겅키는 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엉겅퀴는 혈당 강화작용, 혈액응고 등에 작용하는데, 이는 수곡량기에서 허리에 있는 혈해(血海)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참조)

또한 엉겅퀴는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염 등을 완화하고 예방한다. 이는 수곡온기의 니해(膩海)와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귀의 신이 두뇌로 들어가 니해가 되고, 니해의 탁재(濁滓)가 피부와 터럭을 보익하기 때문에 엉겅퀴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태음인은 간대폐소(肝大肺小)의 장국으로 폐당(肺黨)의 수곡온기가 적은데, 엉겅퀴는 기본적으로 수곡온기의 기 흐름을 잘 흐르게 한다.

제다 및 음용

엉겅퀴는 6~8월경 만개하기 전에 채취하여 깨끗하게 다듬는다. 깨끗하게 씻은 후 찜기에 올려 증제한다. 고온에서 팬 위에 올려 덖고 식힌다. 중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덖는다. 고온에서 가향과 맛내기로 완성한다.

엉겅퀴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엉겅퀴차와 칡꽃차를 블렌딩한다. 칡꽃차는 숙취해소에 좋고, 갱년기 여성들의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엉겅퀴차 블렌딩은 숙취해소를 돕고, 간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간 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엉겅퀴차 1.5g, 칡꽃차 0.5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엉겅퀴와 칡꽃은 모두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고 맥이 약한 사람이나 위장이 차고 식욕이 없는 사람은 음용을 주의해야 한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엉겅퀴 건차향은 응달에서 느껴지는 쾌쾌한 냄새가 났다. 우림한 차에서는 보리차 같은 구수한 향이 났고, 첫 잔의 시음에서는 쇠 맛이 느껴지지만 목 넘김이 부드럽고 달달함이 뒤에서 느껴진다. 두 잔 이상 마시니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느껴졌다.

다른 태음인 시음자는 향은 눈과 맛에는 구수한 맛이다. 맛은 알싸함이 느껴지며, 혀끝이 따가웠다. 머리가 멍해지고, 향은 쾌쾌하였다. 엉겅퀴가 태음인의 꽃차이지만,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은 좋지만, 한증(차가운) 태음인에게는 거북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맡아 지는 서늘한 기운의 냄새가 났다. 또 설악산 오색약수의 쇠 맛이 났다. 첫 잔에서는 목 주변의 시원한 느낌이 느껴졌다. 두 잔부터는 머리가 먹먹해지면서 막히는 느낌이다. 이어서 앞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 몸도 무거워지는 느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미얀마 이주민 아우룽 툰씨, 소뇌 내출혈로 생명 위협
가까스로 살아났지만…병원 빚 2000만원에 고향 못가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❽ 응무소주(應無所住) · 무소주심(無所住心)



▶한줄 요약
내가 한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생각이 붙어 있으면 지난날을 섭섭해 하고 원망하게 된다.

집착 벗어나야 진정한 수행

이제 8월이 지나면서 제주국제명상센터에서 할 일은 다 하게 됐다. 어느 날 문득 뒤 돌아보고 '나는 지난 세월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나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일까? 이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나를 비우는 '아공(我空)' 과 배치되는 말이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제주에 와서 지난 35년간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하고 상담과 명상분야를 활성화한 일은 제주사회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상(相)을 갖게 되면서 '나' 와 다른 사람간의 경계를 짓게 된다.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왔을 때, 독실한 불자였던 양나라의 무제(武帝)는 달마대사를 초빙하였다.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내가 즉위한 이래 무수히 많은 절을 짓고 여러 경전을 만들어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출가를 권유하고, 승려와 사찰에 공양하였습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달마대사는 "공덕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달마대사는 양무제의 덕행이 '내가 무엇을 했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는 일이므로 깨달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덕이 없다"고 한 것이다. 같은 의미로 내가 제주에서 행한 상담과 명상 활동들은 비록 복을 지었을지언정, 깨달음을 이루는 공덕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활동을 달마대사에게 말한다면 영락없이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를 떠나면서 제주국제명상센터에서 행한 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제주를 바라보는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날 내가 한 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 는 생각이 붙어있으면 지난날에 대해 섭섭해 하고 원망하게 된다. 진실로 제주에서의 한 일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려면 '무엇을 했다' 는 생각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섭섭하고 원망스럽다' 는 생각이 붙어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제주를 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덕은 '무엇을 했다' 는 마음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제 겨우 수행의 맛을 본 내가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인용하기가 부끄럽지만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자 다음 일화를 제시한다.

당나라 승려인 무착 선사가 견성을 위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남쪽 항주에서 북쪽 오대산까지 오체투지로 절을 하면서 갔다. 마침내 오대산 금강굴부근에 이르러 잠깐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오다가 말을 걸었다.

"자네는 어떤 사람인데 무엇을 하러 이 깊은 산중에 왔는가?"

"예,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자네 밥 먹었는가?"

"안 먹었습니다."



"순 생짜로군."

노인은 그리고는 소를 타고 가버렸다. 무착 선사는 노인이 범상하지 않음을 느껴 뒤를 따랐고, 얼마쯤 가다 절에 다다랐다. 잠시 뒤 시자가 보석으로 된 황금 다완을 들고 나왔다. 차를 마시는데 노인이 물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날이 저물어갔고, 무착 선사는 평온함을 느껴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노인은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말하였다.

"상(相)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잘 수 없네."

"저는 출가 사문이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물었다.

"스님은 출가한지 몇 년 되었는고?"

"17년 되었습니다."

"자네, 계(戒)를 잘 지키는가?"

"예, 출가한 이래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뒤 다시 말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상(相)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네는 여기서 잘 수가 없네."

노인은 시자를 시켜 무착 선사를 배웅하게 하였다.

공덕 인정받고 싶은 양무제
"절 많이 짓고 경전 유포해"
달마대사 "아무 공덕 없다"
상(相) 내지 않는 게 수행자

부처님께서는 위없는 진리를 얻었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설한바 법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으셨다. '진리를 얻었다' 거나 '설한 법이 있다' 는 자체가 상(相)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가르침을 받은 스님은 오대산에서 돌아온 후 정진하여 대도를 성취하였다.

상(相)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할 뿐이다. 아무리 잘 갖춘 몸으로 태어나도 죽기 마련이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기 마련이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모든 상의 본질인 것이다. 정녕 나의 보시가 성(性)의 자리로 통하려면 집착이 없는 무주상(無住相)의 보시라야 한다.

무주상의 보시가 되면 성의 자리로 통할 수 있지만 물질의 보시는 물질적인 복덕으로 끝날 뿐 성(性)의 자리, 법(法)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미혹 속에서 고난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생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성의 자리, 언제나 깨어있는 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봄바람은 '저 나무의 꽃을 붉게 만들어야 되겠다. 노랗게 만들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 없다. 그냥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나무들에게 따스한 바람을 안겨준다. 그러나 봄이 되어 바람이 불면 벚나무에는 벚꽃이, 살구나무에는 살구꽃이 피어나며, 진달래도 개나리도 꽃을 피운다.

그런데 봄바람은 그냥 따뜻한 바람만을 아낌없이 줄 뿐이다. 벚꽃은 예쁘니까 바람을 많이 주고, 개나리는 미우니까 바람을 적게 주지 않는다. 그냥 차별 없이 바람을 줄 뿐이다. 이처럼 내가 봄바람처럼 아무런 상을 갖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는 인상을 일으키고, 잘잘못을 시비하는 중생상이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수자상을 갖는다면 나는 결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단지 범부일 뿐이다. 이처럼 봄바람은 집착이 없다. 봄바람이 지나고 나면 붉은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푸른 잎도 돋아난다.

그러니 내가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생각은 나를 '머무르는바 없이(應無所住), 집착이 없는 마음(無所住心)으로 살아야 한다' 는 부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셈이 된다. 명상센터를 설립하여 제주를 밝은 사회로 변화시켰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단단한 상을 지니고 살아온 셈이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에도 베푼다는 생각 없이 복을 지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깨닫지 못한 필자가 복을 짓지 않는다면 어찌 깨달음에 이르겠는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나율 존자가 있었다. 그는 수행을 게을리 하여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되었는데, 이후 크게 뉘우치고 용맹심을 발하여 정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장님이 되었다. 그러나 육체의 눈은 잃었지만 마음의 눈인 천안(天眼)을 얻게 되었다. 그래도 몹시 불편하였다. 어느 날 찢어진 옷을 깁기 위해 더듬거리며 바늘과 실을 찾았다. 이때 부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시다가 아나율 존자를 보고 바늘과 실을 받아 쥐었다.

"내가 끼워주마."

아나율 존자는 그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몸 둘 바를 몰랐다.

"아! 부처님께서 어찌 이러한 일까지 하시옵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나도 끝없이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너희들만 복을 닦고 향상해야 되겠느냐. 나도 끝없이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바늘귀를 꿰어주신 것은 당신이 어떤 복을 짓겠다든가, 복을 받겠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다. 결코 줄어들거나 새어나감이 없는 무루복(無漏福)을 닦으신 부처님께서는, 복이 다하면 다시 불행해지는 유루복(有漏福)에 대해 어떠한 집착도 없으셨다. 어떠한 중생을 위해 어떻게 베푼다는 생각 없이 단지 베풀어주셨다. 마치 추운 날 따뜻한 햇볕을 보내주는 태양처럼 베풀어주시는 것이다.(우룡 스님, 2008)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짓는 밥은 양약이 되지만, 불평불만을 가득 품고 만드는 음식은 생명에 독이 된다. 흔히 '나' 의 불평불만이 '나' 의 혀끝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고 노출되면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이를테면 간밤에 부부가 싸운 뒤 잠을 잤을 경우, 아침에 일어난 아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밥을 짓고 나물을 무친다고 생각해보자. 쌀과 나물에는 아내의 손끝으로 전달되는 화라는 에너지가 흡수되어 밥이 되고 나물이 되어 밥상에 놓인다. 그 음식을 먹은 남편은 화를 먹게 되어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 사회나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相)을 짓느라 분주하다. 앞으로 나는 제주국제명상센터를 떠나 새로운 정착지 안동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어떠한 복도 짓는다는 생각 없이 복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前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방송시간안내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육조 혜능스님이 법문하신 육조단경의 핵심 내용을 배워보는 시간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토) 22: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일) 14:00



동훈스님의 다음생 이야기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일) 21: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50 호 현대불교
2023년 9월 6일(음 7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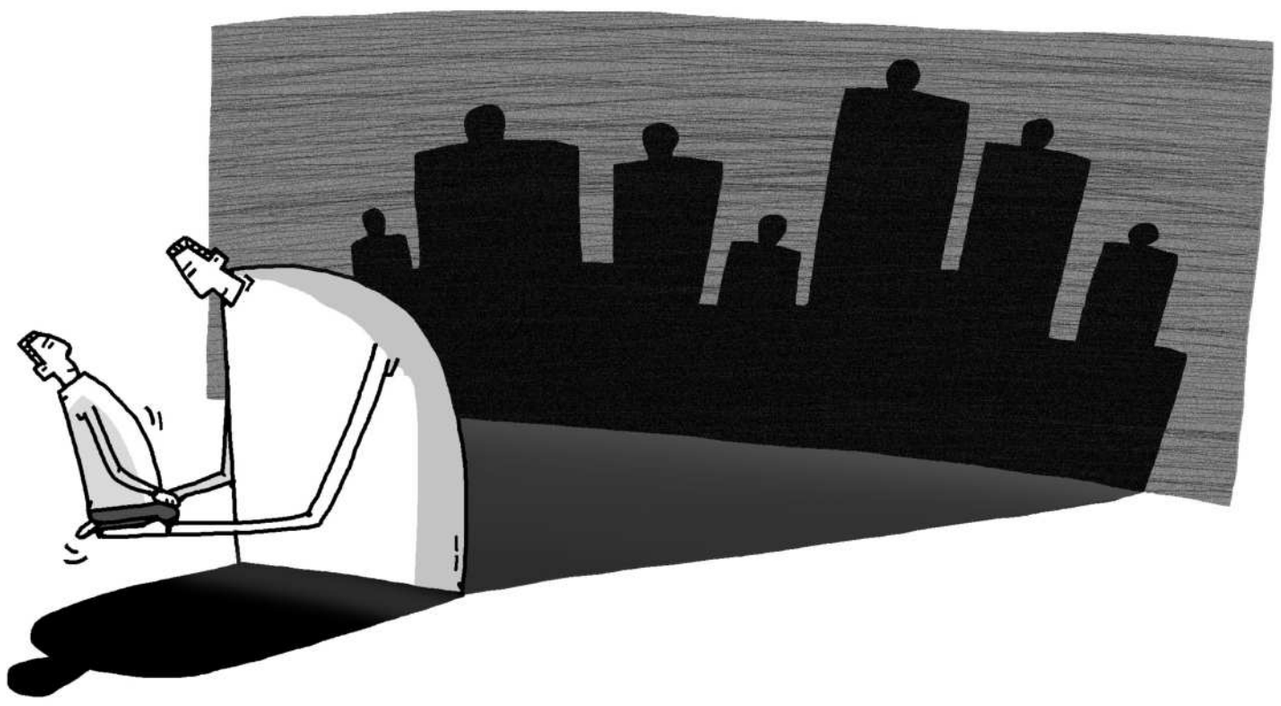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무척 덥죠? 이렇게 날이 궂어도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을 지냈는데 그 백종을 왜 지내야 하는지,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지금 현재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 안으로 들이대야죠.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 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려 가면서 하다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감응이 되고 그 감응이 이제 좀 지내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하는 도리만 얘기해 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 말라, 또 그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 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 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거를 내세우다 보면 공부는 '팡' 입니다.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럭하다 보면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다 끄달리다 쪼끔쪼끔 가다 보면, 자기가 그만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럭하면 영계성으로서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뭐, 압니까마는 그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그 영계가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게 김이 올라와서 귀로 들리고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야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 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떠돌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 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이,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 저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참,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하지만 가정이 다 이거는 문제가 되니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아이, 죽어서 없어지면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그럭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거, 바깥에서 닥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 이러더라도 '밉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깐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아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하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구요. 그 마음을 그렇게 밉게, 그냥 말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듯이 녹음기에 자동 녹음이 됐는데, 이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깐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건 아니 됩니다. 업을 끊을래야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습을 떼어 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또 해야 하니깐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몰라라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가 같이 꿰여 있듯이 그렇게 꿰여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생략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분일초만 앞서면은 미래입니다. 일 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이 칠석이라는 것은, 이 내 칠석 부처님, 칠성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거는 내 몸과 더불어 같이 그,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종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종이 또 무엇이냐? 백종은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게 참, 말을 하려면 긴데요, 길어도 할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죽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어느 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러죠? 또 오무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이거를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토끼가 된다거나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

☞ 22면으로 계속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세계 유심세계 둘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

☞ 21면에서 계속

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태어나면 또 얼마 안 있어서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허허허.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현실에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딱 떠나면 미래로 해서 한번 쓱 돌아서 다시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가서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뭐, 미래가 금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때에 따라서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돌아 나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둥바둥하죠.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의 개로 태어난다든가 또 고양이로 태어난다든가 하는데 그 고양이도 알고 개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구렁이로 태어났어도 바로 그 집을 지켜 준다고 그 집 가서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을 고치다가 보면, 천석꾼이다 뭐, 만석꾼이다 하고 그러다가 아, 집이 헐어져서 고치려고 보면, 큰 구렁이가 그냥 나오죠. 그런데 아, 그놈의 걸 잘 해서 딴 데로 옮겨 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면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싹 망하죠.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나는 그런 거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내 한 생각이 잘못돼서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 그 과보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그저 마음 하나 잘 쓰는 데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번 했으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로 지옥고를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 그냥 탁 자르는 거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또 개도 목을 매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이를 막 치고 그냥 털이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이를 쳐도 그건 소용없죠. 그냥 목을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어 버리죠.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불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길이 없는 이런 이치죠. 소를 콧잔등이를 그냥 때려서 쓰러지면은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살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데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매서 이렇게 끌면은 엉엉 울죠.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삐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허허허.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째에 주의해라. 죽여 놓은 것도 많은데 생생한 거 먹는다고,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거 보면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깐요. 내 몸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또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자재 못 하고 사는 거죠.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끌어 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지옥이죠. 그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영계성이든 세균성이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 현실에 있는 거고, 현실에서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의 걸음걸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홀랑 벗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다가 돌아가신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다녀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자기는 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니까 아주 그 괘씸스럽죠, 자기 깐에는요. 딴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렇게 괘씸스럽고 그렇죠.

또 자기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영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우니까 '이놈 자식,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때리고, 그래서 분이 나서 친척 집으로 가면 아, 친척 집이 역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길 가도 그러고 저길 가도 부대끼고 그렇게 자기가 부대끼니까 그 식구가 다 부대끼는 겁니다. 집집마다 말입니다.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또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은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그저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려고 아주 미리 작정하고 있구먼.' 하고, 허허, 한탄들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만날 이 공부를 지극하게 하시라,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 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식과 위로 부모란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중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자식한테도 그렇게 어긋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꾸 마음의 주인공에다가 지극하게 놓아야 되겠죠. 그 자식의 주인공도 있을 테니깐 말입니다.

'그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닌데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자꾸 놓으면서, 또 들어오면 부드럽게 해 줘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요놈의 새끼야, 그러냐 마냐, 어떡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마냐!" 하니까 이거는 더 빗나가요. 그냥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마음 거슬리지 않게 해 드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거 거슬리는 말씀 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그렇게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합죠 하고 여기다 놓고서는 잘되게끔 돌려야 되는 거죠. 또 부모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되라고, 마음으로는 잘되라고 하는 거지 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어머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거기다 놓고 어머님이 잘되라고 하신 거니까 잘돼야겠다 하고선 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은 양쪽이 다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똑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 이러고 대드니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비유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남편과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한 철입니다, 한 철! 캠핑왔다가 한 철 놀다 가는 한 철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웃고 즐기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울며 아프며 복장을 찧으며 이러구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또 이런 거를요, 백종 때, 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가지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은 남한테 모함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꾸 이렇게 그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빚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자연적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게 하게 되죠.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돼서 인간으로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깐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우씨 얘기도 하구요. 이제 무우씨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또 심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 어딨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백종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취하십시오. 또 백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거 그대로가 백종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 세계, 유심 세계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 세계 유심 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인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얀 백종이죠. 허허허.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백종이 따로 없고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원하게 자유자재권을 얻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말은 이렇게 허명하게 허실하게 했지만요, 듣는 분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서이초 교사 죽음을 애도하며…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학부모 지속적 민원으로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은 서이초 신임 교사
9월 4일 49재 '공교육 멈춤 날' 선포
정부와 국회에 교권수호법 제정 촉구

스승은 올바른 길 제시하는 선지식인
교육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 이룩
학생 열패자 만든 교육정책 점검으로
교사 죽음 교훈으로 교육 전환 이뤄야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임 박모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시간 중 학생들 간에 다툼이 있어 한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힌 사건'이 있었고, "선생님 수업시간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라고 학부모가 화를 내며 강한 항의를 받은 며칠 뒤의 일이다.

해당교사는 26명 중 10명의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받으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문제는 가해자 학부모가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으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됐다는 점이다. 전국의 초·중등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 뙤약볕에서 붕괴하는 교실과 교권 수호를 호소하는 울부짖는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고인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정부당국과 국회에 교권수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직을 떠난 선배교사로서 참담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 부끄럽고 슬프다. 그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었기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실 붕괴와 교권의 추락이다. 일부 지역의 유별난 학부모들의 갑질도 문제지만 이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다.

친구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고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을 타이르고, 바뀌지 않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아동보호법 때문에 교사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소송을 당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실태이다.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러세요."하고, 또 어느 학부모는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학생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본다고 항의한다. 교사는 교편(敎鞭)을 잃어버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가 없다.

교사가 학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벌점도 안 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해도 안 된다. 체벌은 더더욱 안 되고, 심지어 말로 혼내도 안 된다. 고 서이초 교사는 일기장에 "강한 훈육 방법 밖에 없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며 기록하였다. 어느 시대나 문제학생은 있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교사를 지도하려는 학부모는 없었다. 교육공동체의 3주체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군사부(君師父) 일체라 하여 자신과 자식을 가르치는 스승을 나라의 임금과 부모와 같이 공경하고 따랐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스승에 대한 존경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 교단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 교권이 실추되어 교사가 죽어가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면 누구에게 배우나?

스승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인격을 통하여 인생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운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이 만인등(萬人燈)이 되어 결국 세상을 밝힌다. 선지식이 스승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 하여, 교육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녀에 대한 교육의 열성이 세계 제일인 나라이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이룩했다. 그런 대한민국이 교육이 나락으로 추락하려고 한다.

더 이상 입시 만능 교육은 안 된다. 5세 어린이부터 경쟁의 교육 지옥에서 인성은 사라진다. '의대 올인 교육(이과)', '로스쿨 올인 교육(문과)'으로 교육의 승자는 1%의 극소수뿐이다.

벼랑 낭떠러지기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는 대오각성하고 고삐를 잡아 회수(回首)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스물 세 살 꽃 다운 청춘, 서이초 교사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깨우친 교훈을 받들어서 지금 한국 교육의 전반에 걸친 대전환의 기회로 삼자.

社 說

탑·부도 발견 성보 소유권 환수 '환영'

8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수정·가결됐다. 두 법률 개정안은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지까지 부도와 탑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의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그렇기에 사찰들은 자신의 소유가 분명함에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관정 절차를 진행하며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월정사가 진행했던 소유권 반환 소송이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월정사 경내의 국보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과정에서 '청자과형병' 등 13점이 발굴됐으나 사찰이 아닌 국가로 귀속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결국 되찾게 됐으나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해당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사찰은 앞으로 소유 건조물에서 발견되는 성보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조계종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유권의 판정이 무의미한 사찰 소유 건조물의 발견 문화재가 사찰의 소유임을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도 불교를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 법령들은 많다. 현재 조계종에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있다. 결국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불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시 전문지 〈유심〉 재창간에 부쳐

시(詩)의 한자를 풀어내면 '말(言)'과 '사찰(寺)'이다. 다시 말해 '시'는 '말의 사찰'이며 '사찰의 말'이다. 그렇기에 시는 불교와 가장 가까운 문학이다. 스님들은 고도의 비유와 상징, 함축된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 문학이 합일되는 시선일여(詩禪一如)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순수 우리 언어로 한국 선시의 시작을 알린 선지식이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이다.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스님이 창간한 종합교양지가 〈유심(唯心)〉이다. 일제 탄압과 3·1 운동 준비로 제3호로 중단됐지만, 대중계몽을 위한 만해 스님의 원력은 후학들이게도 전해져 2001년 설악 무산 스님이 복간했다. 〈유심〉은 빠르게 국내 대표 문예지로 거듭났으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2015년 폐간하게 된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23년 만해 스님과 무산 스님의 문인(文人) 후학들이 〈유심〉을 재창간하고 계간지로의 출발을 알렸다.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하 선양회)는 만해 스님이 〈유심〉을 창간했던 1918년 9월 1일에 맞춰, 2023년 9월 1일자로 〈유심〉을 재창간하고 재창간 1호를 발행했다.

〈유심〉 재창간을 기점으로 선양회는 '무산상'을 제정해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내년부터 시상키로 했으며, 기존 '유심작품상'으로는 중진 문인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한국사회는 분노가 팽배하고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돼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만해 스님의 민족의식과 자유 평등 사상, 무산 스님이 강조한 조화상생의 삶이다. 〈유심〉이 두 선지식의 사상에 기반한 웅숭깊은 문학 정신을 구현하는 문예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행복의 법칙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안고 있는 본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러한 생명의 법칙, 마음의 법칙을 깨닫고 있다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법칙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알고 생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건강을 바라면서도 병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성공을 바라면서도 실패를 생각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아는 자는 건강하기를 원하기에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마음의 법칙을 아는 자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상상합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며 자신이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란 미움, 분노, 공포, 질투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인간이 가진 본성인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사랑에 위배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날은 태양을 볼 수 없듯이 어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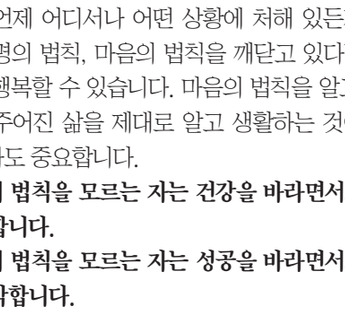
사람은 우선 마음속에 활기차고 희망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아름답고 기쁜 추억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남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일찍이 무학 대사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될 수 있는 한 마음속에 불쾌한 모든 기억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슬픈 사연이나 우울한 암시를 빨리 없애버리고 나면 하루하루는 날마다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이러한 나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찌꺼기보다 훨씬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개정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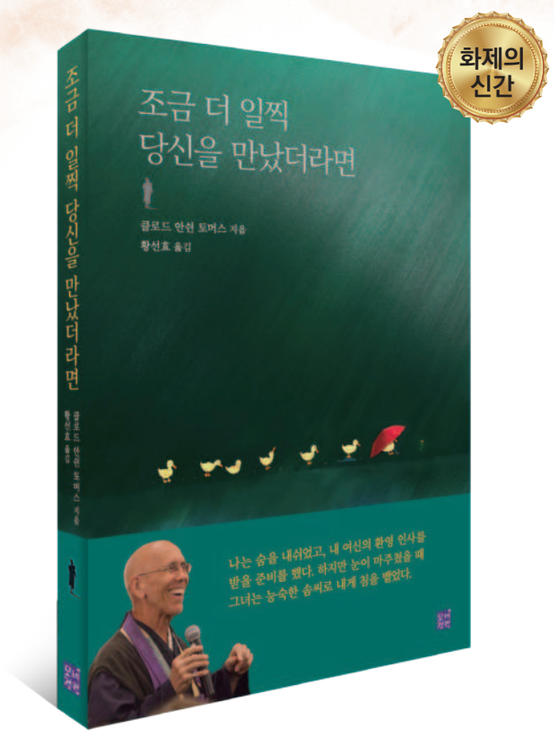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